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윤 용 남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개정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교과서
내용분석과 개선방안

- 朱子 · 退溪 · 栗谷 性理說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윤리학과

박 소 연

2009개정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교과서
내용분석과 개선방안

- 朱子 · 退溪 · 栗谷 性理說을 중심으로 -

윤 용 남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윤리학과

박 소 연

인 준 서

박소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퇴계와 율곡은 조선 성리학의 전성기를 주도하며 조선의 성리학을 완성한 대표적인 두 인물이다. 그들은 주자 성리학이라는 큰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성리학의 핵심개념에 대한 이해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고방식과 연결되어 후학들이 이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들의 사상을 중심으로 퇴계(영남)학과와 율곡(기호)학과가 형성되어 각각 학문적 체계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달랐어도 퇴계와 율곡이 지향하는 학문의 목표는 같았다. 선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삶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삶을 꾸려가는 과정 및 방법은 달랐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학문에 매진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자는 주자와 퇴·율 성리학의 여러 개념 중에서도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고 있는 성리학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매년 대학 수능능력시험 윤리와 사상에서 성리학에 관한 문제는 변별력이 높은 문제로 주로 출제된다. 도덕과 교육과정 중에서도 학생들이 특히 더 어려워하는 성리학은 인문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자산이 되도록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내용 체계를 갖춰 서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성리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험을 위한 암기를 할 것이고, 동양철학에 대한 흥미가 낮아져 성리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위기지학(爲己之學)의 공부 아닌 위인지학(爲人之學)의 한계에 맞닥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성리학 부분을 찾아 검토·분석하여 성리학에서의 각 학자의 주장에 맞게 학생들의 이해도

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는지, 그리고 개념을 정확히 서술했는지 등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본자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주자와 퇴계, 율곡 사상 부분에서 크게 이기론(理氣論), 심성론(心性論), 수양론(修養論)으로 영역을 나누고 퇴계 사상에서는 수양론(修養論) 중에서도 경(敬)을, 심성론(心性論)에서도 사칠론(四七論)을 주로 다루었고, 율곡 사상에서는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을 위주로 논하였다.

주자, 퇴계, 율곡은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理)와 기(氣)라고 한다. 이러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그들의 모든 이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이기론(理氣論)은 심성론(心性論), 수양론(修養論)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성리학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뼈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주자, 퇴계, 율곡의 이기론(理氣論)은 출판사 별로 분량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또한 이기론(理氣論)이 모든 이론의 바탕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심성론(心性論), 수양론(修養論)과 어떤 긴밀성이 있는지를 밝히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나 이를 구현한 교과서는 찾기 힘들었다. 더불어 개념 정리가 산만하거나 내용이 매우 소략하여 교과서만을 읽고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 강조하는 교과 내용의 체계, 연계성, 구체적인 의미 설명은 본문 내용에서도 제시되었듯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집필할 때 끝까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추상적인 설명과 단편적인 내용에 머무르는 한계를 깨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중요 요소들을 지키고자 노력을 기울일 때, 학생들은 비로소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위인지학(爲人之學)을 넘어 위기지학(爲己之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및 범위	3
II. 『윤리와 사상』 교과서 내용분석 및 개선방안	7
1. 주자(朱子)의 성리설(性理說)	8
1) 이기론(理氣論)	8
2) 심성론(心性論)	15
3) 수양론(修養論)	21
2. 퇴계(退溪)의 성리설(性理說)	27
1) 이기론(理氣論)	27
2) 사칠론(四七論)	33
3) 경설(敬說)	39
3. 율곡(栗谷)의 성리설(性理說)	45
1) 이기론(理氣論)	45
2)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53
3) 수양론(修養論)	59
V. 결론 및 제언	65
1. 요약	65
2. 결론 및 제언	67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성리학은 북송 때부터 시작되어 명대까지 이어진 ‘새로운 유학’이라는 의미에서 신유학이라고도 불린다. 이 외에도 이학·주자학·정주학·도학·송학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성리학은 북송시대의 유학 사상을 남송의 주자가 체계화시켜 집대성한 학문이다.¹⁾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은 14세기 말 무렵부터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여 조선 건국 이후에는 우리 사회의 지도적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²⁾ 그리고 이후 17세기에는 성리학의 영향이 일본까지 전파되면서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언급했듯 조선 500년 통치이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성리학의 중요성이나 그 위상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동양철학은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해해야 하는 학문이다. 특히 주자에 의해 집대성된 성리학의 경우 이(理)와 기(氣)로 우주 자연과 인간세계의 생성 및 존재를 설명하고, 이기론, 심성론, 인식론, 수양공부론 등 방대한 이론 체계가 있기에 더욱 그렇다. 또한, 이러한 주자의 사상을 퇴·율이 선택적으로 계승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성리학의 기본이 되는 공통으로 주장한 부분과 다른 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만 성리학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수능시험을 잘 보기 위해 기계적으로 혹은 제시되는

1) 안유경,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 새문사, 2015, p.18.

2) 위의 책, p.6.

공식에 맞춰 무조건 암기하여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윤리교육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익숙하지 않은 학자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낯선 내용과 이론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공부의 의미를 느낄 기회를 앗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과정 중에서도 학생들이 특히 더 어려워하는 성리학은 인문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자선이 되도록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즉, 내용적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윤리와 사상』에서 성리학의 이론에 맞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서술인지, 그리고 개념을 정확히 서술했는지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선행연구로는 이영경(2010).³⁾이 『윤리와 사상』과 『전통윤리』교과서 내용에서 퇴계 사상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언급하며, 향후 퇴계 사상 내용의 집필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맞는 수업 방략의 맥락을 ‘이해→성찰→실천과 참여→평가와 모색’이라는 4단계의 구조로 구성한 것이 있다. 이 연구는 한국윤리 사상 교육이 학습자의 인격 형성과 삶에 유의미한 교육이 될 수 있게 연구한 논문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윤리 사상 중에서 퇴계(退溪) 사상만을 다룬 점이 아쉽다.

또한 정연수(2017)⁴⁾가 율곡 사상에 관한 내용을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어떤 방향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언하며, 특히 율곡의 사회사상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 율곡 교육사상에 관한 학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율곡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인성교육 방향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율곡의 국방, 경제, 외교 등에 관한 사회사상의 보완점을 짚고 있다는 점

3) 이영경, 「고등학교 윤리교육에서 퇴계 사상의 내용 구성 방향과 수업 방략 탐색」, 『윤리교육연구』, 22권, 2010.

4) 정연수, 「율곡의 사상과 인성교육에 관한 반성적 고찰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학계의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1권, 2017.

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연구의 범위가 협소하여 율곡 사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박학래(2011)⁵⁾가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 중에서도 ‘한국의 윤리 사상’에 초점을 두고 유교, 불교, 도교 등의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점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윤리 사상을 구성하는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도교 사상은 그 중요성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내용 체계와 내용 요소를 구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유·불·도교를 모두 다루다 보니 각각의 내용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고, 내용 체계 및 내용 요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구체적인 집필 방향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고 있는 성리학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아울러 퇴계 혹은 율곡으로만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내용 체계 구성을 살펴보거나 혹은 내용 요소를 분석한 연구들만 있어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한 연구는 드물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2009개정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언급한 주자, 퇴·율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논문, 서적, 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연구한 ‘문헌연구법(documentary analysis)’을 통한 연구물이다.

5) 박학래,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한국의 윤리 사상’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83권, 2011.

본 논문은 주자와 한국 성리학 중에서도 퇴·율을 중심으로 한 관련 자료들을 위주로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국내 전공자들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교과서와 교육과정해설서 등을 분석 및 참고하고, 선행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퇴계 이황 이기론(理氣論)의 경우 학자마다 해석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논의를 하고자 한다.

퇴계의 ‘이발(理發)’에 대한 표명은 조선 시대부터 현대까지도 학계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다. 현대 학자들은 대부분 ‘이기호발(理氣互發)’을 퇴계 사상의 구별되는 특징으로 꼽으면서 퇴계가 이(理)의 능동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다카하시 도오루의 기본 관점이기도 하며, 뚜웨 이밍을 비롯한 여러 중국 학자들도 퇴계와 주자의 성리설(性理說)이 같다는 시각에서 퇴계는 어떤 사상으로 퇴계라고 할 수 있는가를 의논·고심한 결과 퇴계의 독창성을 이발(理發)에서 찾았다. 더 나아가 퇴계가 제기한 이발(理發)·이동(理動)·이도(理到)의 명제가 가지는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퇴계는 주자와는 달리 이(理)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처럼 퇴계의 이발설(理發說)은 이(理)의 능동성에 대한 정립이 늘 동반된다. 현재에는 학자들이 이발(理發)-이동(理動)-이도(理到)를 연속적으로 이해하면서 이(理)의 능동성 정립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뿐 아니라 이(理)의 동정(動靜) 논의에서 이(理)의 능동성 정립은 중심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거나, 이(理)의 능동성 정립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⁶⁾

이(理)의 능동성에 대한 설명은 퇴계의 승마설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옛 사람이 말을 타고 출입하는 것으로 리가 기를 타고 운행하는 것에 비유하였으니 아주 좋다.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고

6) 박지현, 「퇴계 이황의 사단칠정론-리발설(호발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 퇴계학논집, 2011. p.343.

말은 사람이 아니면 길을 잃으니 사람과 말은 상수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이것을 가리켜 말하는 자가 혹은 범범하게 가는 것을 가리켜 말하면 사람과 말은 모두 그 안에 있으니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지 않고 혼란해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혹은 사람이 가는 것을 가리켜 말하면 반드시 말도 함께 말하지 않아도 말이 간다는 것이 그 안에 있으니 사단이 이것이다. 혹은 말이 간다는 것을 가리켜 말하면 반드시 사람을 함께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간다는 것이 그 안에 있으니 칠정이 이것이다⁷⁾

승마설을 살펴보면 사람은 말을 항상 타고 있다. 사람과 말은 떨어진 적이 없다. 사람이 말에서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과 말이 각각 있으므로 소종래(所從來)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理]이 목적지로 가는 것이지만 [理發]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氣]이 움직여 가는 것이지만 [氣發] 이 경우도 말만 가는 것이 아니다. 사단(四端)이든 칠정(七情)이든 처음부터 이(理)와 기(氣)는 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근원은 하나이지만 소종래(所從來)가 있기에 주리(主理), 주기(主氣)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발(理發)을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입하여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발(理發)이 사단(四端)이 되는데, 마음[心]속의 이(理)가 발할 때, 항상 그 바탕은 기(氣)의 작용이다. 즉, 기(氣)의 작용 없이 이(理)는 독자적으로 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기(氣)는 이발(理發)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여기서 이(理)가 의미상의 초점이 되므로 기(氣)의 작용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理)의 동정과 기(氣)의 동정은 질적으로 다르며, 이발(理發)의 의

7) ㉑ 계집, 16-5,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二書』, 560. “古人以人乘馬出入, 比理乘氣而行, 正好. 蓋人非馬不出入, 馬非人失軌途, 人馬相須不相離. 人有指說此者, 或泛指而言其行, 則人馬皆在其中, 四七渾淪而言者, 是也. 或指言人行, 則不須并言馬, 而馬行在其中, 四端是也. 或指言馬行, 則不須并言人, 而人行在其中, 七情是也.”(박지현, 『퇴계 이황의 사단칠정론-리발설(호발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 퇴계학논집, 2011. 재인용)

미가 기(氣)없이 스스로 동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이유로서의 동정’, 소당연적 가치, 도리 등의 이유에서의 동정이라고 주장한 윤용남의 주장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강하다고 보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세세하게 2009개정 교육과정의 『윤리와 사상』에 서술된 성리학 전 부분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지도서의 경우, 교학사, 지학사, 미래엔, 금성출판사를 살펴보았으며 이후부터는 교학사를 A사, 지학사를 B사, 미래엔을 C사, 금성출판사를 D사라고 칭한다.

II. 『윤리와 사상』 내용 검토 및 개선방안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 과목 중 하나인 ‘윤리와 사상’은 동양과 서양의 주요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윤리적 사고의 기반을 형성하고, 현재의 삶에서 바람직한 윤리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정된 교과목이다.⁸⁾

고등학생에게 있어 도덕과 선택 과목이 가지는 의미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의 최종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학생들에게는 계속 교육의 의미가 있다.⁹⁾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과정 자체 내의 구성이나 내용은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서 완결적 체계와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추후 대학 교육 등 고등 교육의 포괄적인 인문학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토대적인 성격의 의미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능동적인 시민이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소양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추후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에 밀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학습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양과 한국윤리 사상’ 영역에 서술되어있는 내용 중에서도 주자, 퇴계, 율곡 성리학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더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집필 방향에 대해 논하겠다. 앞서 서론에서도 밝혔듯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지도서의 경우, 교학사, 지학사, 미래엔, 금성출판사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후부터는 교학사를 A사, 지학사를 B사, 미래엔을 C사, 금성출판사를 D사라고 칭한다.

8)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도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9), p.132.

9) 윤현진 외,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p.1.

10) 박학래,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한국의 윤리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윤리학회』, 2011, p.197.

1. 주자(朱子)의 성리설(性理說)

1) 이기론(理氣論)

먼저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제시된 주자의 이기론(理氣論)과 관련된 내용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사: “주희(朱熹)는 맹자의 성선설과 북송(北宋)의 여러 도학자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인간의 본성과 우주 자연의 이법이 일치한다는 성즉리설(性卽理說)을 바탕으로 성리학(性理學)이라는 새로운 유교의 이론체계를 마련하였다.

①성리학에서는 ‘이(理)’와 ‘기(氣)’라는 개념으로 우주 만물의 생성 근거와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는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 ‘기’의 활동 근거가 되는 것이고, ‘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로서 구체적 모습으로 파악하는 것이 기본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와 ‘기’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는 형체가 없고 구체적으로 운동과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물에 내재하는 동시에 ‘기’의 운동과 변화의 원리가 된다. 반면에 ‘기’는 형체도 있고 운동과 변화의 구체적 요소이다. ‘이’와 ‘기’의 관계에 있어서 세계의 참 모습인 ‘이’는 세계의 현실적인 모습인 ‘기’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②구체적인 사물은 언제나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③다만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지만 섞이지도 않는다. 주희는 이를 ‘불상리(不相離) 불상잡(不相雜)’이라 표현하였다.”¹¹⁾

A사는 다른 출판사들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理)와 기(氣)에 대한 설명이 많지만, 집필의 섬세함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①의 문장에서 성리학에

11) 박효종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교학사, p.45.

서는 이(理)와 기(氣)라는 개념으로 우주 만물의 생성 근거와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개념’이라는 단어는 이(理)와 기(氣)를 가리키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개념’이라 함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개념을 떠올려보라 하였을 때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다양한 꽃들의 모양,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꽃만의 속성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개념이란 추상적인 생각이며, 실체가 전제된다. 또한 ‘개념’이란 단어는 개념론과 연계되어 서양철학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이고, 개념이라는 단어를 생략해도 이기론(理氣論)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색함이 없다. 그러므로 ①의 문장은 ‘성리학에서는 ‘이(理)’와 ‘기(氣)’로 우주 만물의 생성 근거와 현상을 설명하였다.’라고 하거나 혹은 ‘이(理)’와 ‘기(氣)’를 중심으로 우주 만물의 생성 근거와 현상을 설명하였다고 하는 것이 이기론(理氣論)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해주며 이어지는 문장들과도 문맥이 맞다.

②의 문장은 앞에서도 일반적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理)와 기(氣)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생략되어도 무방하며, ③‘불상리(不相離) 불상잡(不相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理)와 기(氣)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불상리(不相離) 불상잡(不相雜)’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설명이다. 존재하는 사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理)와 기(氣)로 이루어진 사물에서 이기(理氣)를 서로 분리해 볼 수 없다. 한편 논리론적 혹은 이론적으로 사물을 보면 이(理)와 기(氣)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지 같은 것이 아니기에 이(理)는 이(理)이고 기(氣)는 기(氣)로 보아야 한다.

B사: “성리학은 주희에 의해 집대성되었다. 그는 이 세상은 ‘이(理)’와 ‘기(氣)’로 구성되어 존재하며, 이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이치이고, ①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나 도구로 보았다. 또한, 맹자의 성선설에 입각하여 ②“인간의 성은 곧 이[性卽理]이며, 인의예지의

사덕(四德)”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의 도덕성을 존재론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가 주희를 비롯한 송대 유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들에 의해 세워진 유학의 형이상학적 체계는 전통 유학과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신유학’이라고도 한다.’¹²⁾

인간의 도덕성을 존재론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가 성리학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도 그 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는 바가 없어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아울러 신유학의 형이상학적 체계가 전통 유학과 분명히 구별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명확한 내용이 없어 학습자의 처지에서는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끊어진 체계를 연결하려면 이 세상을 구성하는 이(理)와 기(氣)가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앞서 A사의 이기론(理氣論) 설명처럼 특성에 대해 논하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덧붙여 ①기(氣)에 대한 설명에서 기(氣)를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로 보았다고 말하며 도구라고 서술한 부분을 삭제해야 기(氣)의 의미가 정확해진다. 도구는 일할 때 쓰는 연장의 의미로 주로 쓰이는데 우주 내 만물을 구성할 때 기(氣)가 연장의 역할을 하며 다른 존재하는 만물들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氣)는 서로 응결하여 만물을 구성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기(氣)는 재료가 되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것이지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②성즉리(性卽理)에 관한 서술도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문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성(性)이 곧 이(理)이고, ‘성(性)과 이(理)는 같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뒤의 내용인 인간의 도덕성을 존재론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면 성즉리(性卽理)에 대한 설명을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늘이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역할을 부여하였고, 그 부여한 것을 성(性)이라고 한다. 우주 내의

12) 박병기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지학사, p.51.

모든 만물에게 부여한 성(性)은 본질적으로 같다. 즉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이 갖는 목적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질이 다르기에 만물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 다시 말하면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이다. 사람은 사람의 성(性)대로 인간의 역할인 도덕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그 방향이고 도(道)를 걷는 것이다. 불펜은 불펜의 성(性)대로 잘 써지는 것이 그 역할이고 불펜이 나아가야 할 도(道)이다. 이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하늘에서 성(性)을 부여받았으며 성(性)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며 성즉리(性卽理)의 의미를 풀이하면 성(性)과 이(理)를 동의어로 해석하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인간이 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도 명확해질 수 있다.

C사: “주자는 도학자들의 성즉리설(性卽理說)을 집대성하여 성리학(性理學)을 확립하였다. ①‘성즉리’는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본성이 곧 하늘이 부여한 이치라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은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 것이다.

먼저 이기론은 우주 만물의 구조를 이(理)와 기(氣)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이기론에 따르면 우주 만물은 이와 기가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는 만물을 낳는 근본 원리를 말하며, 기는 만물을 생성하는 재료를 말한다.

주자는 모든 사물이 이와 기의 결합으로 되어있으므로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질 수 없으며[理氣不相離], 동시에 원리로서의 이와 재료로서의 기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므로 이와 기는 뒤섞일 수 없다. [理氣不相雜]고 보았다. 주자는 모든 사물은 이(理)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理)의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존재하는 만물이 서로 다른 것은 기(氣)의 맑고 흐림 또는 바르고 치우침[清濁粹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②주자는 모든 사물에 다 이(理)가 있으나, 개별 사물들의 완성도

에서 서로 차이가나는 까닭은 기(氣)의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성인(聖人)과 범인(凡人) 중 성인이 더 맑은 기를 가졌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 만물의 위계질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³⁾

C사 역시 A사와 비슷한 분량으로 주자의 이기론(理氣論)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기(氣)를 재료라고 칭하며 알맞은 표현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理)와 기(氣)의 두 가지 ‘개념’으로 우주 만물의 구조를 설명하려 했다는 구절에서 개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쉬우며, B사와 마찬가지로 ①성즉리에 대한 해석을 성(性)이 곧 이(理)라고 말하며 마치 성(性)과 이(理)가 같은 의미인 것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집필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늘이 부여한 것이 성(性)이고 그 성(性)에는 각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을 서술하면서 ②C사의 교과서 ‘개념 펼치기’ 주자의 이(理)와 기(氣)의 내용에서 나오는 성인과 범인의 차이를 연결해 설명한다면 내용이 더 체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성인은 인간이 부여받은 성(性)대로 행동하여 인간의 도(道)를 가는 사람¹⁴⁾이며, 범인은 인간이 부여받은 성(性)대로 행동하지 못하여 인간의 도(道)를 걷는 사람이 아닌데 그 이유는 기(氣)의 차이 때문이다. 성인은 맑고 순수한 기(氣)를 가졌기 때문에 성(性)대로 행동할 수 있고, 범인은 탁하고 치우친 기(氣)를 가졌기에 성(性)대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집필할 수 있다.

이러한 집필된 내용은 성리학 모든 이론의 토대가 되는 이기론(理氣論)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앞으로 나올 이론인 심성론(心性論), 수양론(修養論)의 내용이해에도 그 기반이 될 것이다.

13) 정창우 외 11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미래엔, p.43~44.

14) 도(道)를 가는 사람, 도(道)를 걷는 사람이란, 인간의 선한 본성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부여받은 이(理)대로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D사: “주희는 우주 만물을 탐구하는 원리로 이기론(理氣論)을 제시하였다. 그는 모든 사물은 이(理)와 기(氣)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는데, ①이(理)는 우주의 원리로서 물리적 현상인 기(氣)보다 앞서는 존재이며 만물의 궁극적 근원이다. 즉 이(理)는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이 아닌 바로 그 사물로서 존재하게 하는 원리이다.”¹⁵⁾

D사의 경우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보충 내용에도 이기론(理氣論)에 대한 설명이 매우 소략하여 성리학의 첫 단추라고 비유할 수 있는 이기론(理氣論)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①에서 이(理)는 기(氣)보다 앞선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이선기후(理先氣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론상·논리상으로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바라보느냐,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에서의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관점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론상·논리상 이(理)는 기(氣)보다 앞선다는 내용을 집필하거나 혹은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한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서술하며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에 관한 내용을 덧붙여 이기론(理氣論)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자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으로서 성리학을 논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현상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즉, 이기설(理氣說)은 성리학의 기본 혹은 기초가 되기에 그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이(理)와 기(氣)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는 2개의 교과서밖에 없다.

교과서 대부분에서는 이(理)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이치이고, 기(氣)

15) 김선욱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p.50.

는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나 도구로 보았다. 여기서 기(氣)를 도구보다는 재료로 표현하는 것이 주자가 말한 기(氣)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¹⁶⁾ 이(理)는 물건의 생성 방향을 설정하고 물건이 만들어진 후 물건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理)는 다른 형색으로 존재하던 기(氣)를 모아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낸다. 이러한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미루어보았을 때, 기(氣)는 만물을 구성하는 도구라고 하기 보다는 재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주자의 의도를 잘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이(理)와 기(氣)의 단순 개념 나열보다는 자세한 설명을 한 후 다음과 같은 표 형태로 정리하여 단원 마무리에 제시하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분	이(理)	기(氣)
작용성	X	O
형체	형이상자(形而上者)	형이하자(形而下者)
차별 상	X 보편성 선약의 기준	O 특수성 선함·악함
취산	X	O

두 번째로 ‘성은 곧 이[性卽理]’, 성즉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성(性)과 이(理)는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性)은 하늘[天]이 명령한 것이고, 부여한 것으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임무가 성(性)이다. 성(性)은 많은 이(理)가 모여 있는 곳으로 이(理)의 특성대로 성(性) 속에는 이미 인간 및 우주 만물 각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 성(性) 속에 있는 이(理)가 성(性)을 기준으로 하여 유행·발현한다는 뜻이고, 성(性)

16) ‘도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다. ‘재료’의 사전적 정의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감, 물질이다. 단어의 정의로 살펴보았을 때, 기(氣)는 우주 만물 생성의 재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

에 의해 그 사람 및 우주 만물이 나아가야 할 길이 정해진다는 의미가 성즉리(性卽理)의 뜻이다.¹⁷⁾ 그러므로 이(理)와 기(氣)의 특성을 이야기한 후 성즉리(性卽理)의 의미를 서술하면 흐름이 더 자연스럽다.

『윤리와 사상』 성리학의 내용에서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하는 것은 성즉리(性卽理)의 핵심, 결국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성(性)은 많은 이(理)가 모여 있는 곳으로 인간이 하늘이 내려준 본성을 스스로 실현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그 실천 의지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성리학의 목적이 성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나 본성을 실현하면 성인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주의 모든 존재 문제를 탐구하는 이기론(理氣論)은 심성론(心性論), 수양론(修養論)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주자가 말하는 이(理)와 기(氣)의 관계, 각각의 특성을 먼저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주자 및 다른 성리학자의 이론들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이기론(理氣論)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해하기 쉬운 풀이가 요구된다.

2) 심성론(心性論)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제시된 주자의 심성론(心性論)과 관련된 내용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사: “주희는 이기론의 바탕 위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중심으로 인성론을 체계화하였다. 그런데 인간의 성품 속 기질지성은 인욕에 의해 악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생략...) ①본연지성은 인간 마음속에 본래 있는 이(理)로서 도덕적 본성이다. 기질지성은 사람의 서로 다른 기질에 따라 나타나는 성품으로 사람의 타고난

17) 윤용남, 「朱子 敬說의 體系的 理解」, 『윤리교육연구』, 2014, p.335.

기질 상태에 따라 선하게 될 수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다. (...생략...) 주희가 밝혔듯이 본연지성(本然之性)은 순전한 이이고, 기질지성(氣質之性)은 기이며 선악을 모두 갖고 있다. 그래서 이는 인간 본성의 순전한 내용을 설명하는 사단이 되고, 기는 칠정이 된다. (...생략...)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분야를 ‘심성론’이라고 한다.”¹⁸⁾

B사의 경우 심성론(心性論)에서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에 대한 설명을 본문 내용과 개념 정의에서 다루고 있다.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은 하나의 성(性)을 두 가지의 관점에 따라 다른 측면으로 구분하여 말하는 것으로 두 개의 성(性)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특성을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을 설명할 때 부각해주면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의 관계를 비유하는 예시를 들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투명한 구슬과 깨끗한 물, 오염된 물이 있다고 가정하자. 투명한 구슬을 깨끗한 물에 넣으면 그 투명함이 온전히 다 비치지만 오염된 물에 투명한 구슬을 넣으면 구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 예시에서 물은 기(氣)이고, 투명한 구슬은 이(理)이다. 투명한 구슬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理)이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성(性)이 된다. 따라서 투명한 구슬 그 자체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이고, 오염된 물에 들어가 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구슬은 기질지성(氣質之性)이다.¹⁹⁾ 이와 같은 예시는 주자의 심성론(心性論)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C사: “심성론은 이기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적 구조와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심성론에 따르면 ①심(心)은 성(性)과 정

18) 박병기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지학사, p.52.

19) 안유경,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새문사, 2015, p.185~186.

(情)을 통괄한다.[心統性情]성(性)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理)로,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나눌 수 있다. 본연지성은 기질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순수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이 기질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본연지성은 동일하지만 기질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질지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정(情)은 성(性)의 외부의 사물에 감응(感應)하여 나타난 감정으로 사단과 칠정을 말한다.”²⁰⁾

심성론(心性論)이 무엇을 밝히고자 한 이론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것은 좋았으나, 심성론(心性論)의 설명을 나열하는 것에만 급급해 보이는 것으로 느껴져 심(心), 성(性), 정(情)에 대한 관계 정리가 산만해 보인다. ① 심통성정(心統性情)의 단순한 개념 설명만 되어있지 어떻게 심(心)이 성(性)과 정(情)을 통괄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있다. 본문 외 개념 설명에서 심통성정(心統性情)을 “주자에 따르면 성(性)은 마음의 본체[體]이며, 정(情)은 마음의 움직임[用]이다. 따라서 마음은 성과 정을 주재하여 통괄하는 것이다.”²¹⁾라고 서술하였지만 이 역시도 심통성정(心統性情)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이해를 돕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심통성정(心統性情)에서 심(心), 성(性), 정(情)의 관계는 작동하는 기계의 구조로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다. 컴퓨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전원과 화면이 켜지고 컴퓨터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정(情)이다. 이러한 컴퓨터를 작동하게끔 하는 소프트웨어는 성(性)이며, 그러한 성(性)을 갖추고 실제로 작동하는 컴퓨터 하드웨어는 심(心)이다. 이렇게 볼 때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본체가 되고, 컴퓨터의 모든 작동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움직인다. 즉, 성(性)은 심(心)의 본체가 되고 심(心)의 모든 작용은 성(性)에 기인

20) 정창우 외 11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미래엔, p.44.

21) 정창우 외 11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미래엔, p.44.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정(情)이므로 심(心)의 구체적 작용은 정(情)이며, 정(情)의 근거는 소프트웨어인 성(性)이다. 이러한 관계를 심통성정(心統性情)이라고 말하며, 결국 심(心)이 성(性)과 정(情)을 포괄하고 주재하여 통괄한다는 것은 심(心)안에 근원으로서의 성(性)과 구체적인 작용(用)으로서의 정(情)이 다 있다는 말이다.

이제 사람의 모습에 대입하면 심(心)에는 인간이 지각하고 생각하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 외부 혹은 내부의 세계를 의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모든 과정에서 심(心)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심(心)은 사유와 지각 활동의 총체적 의미에 해당하고, 성(性)은 구체적인 지각과 감정이 생기는 원인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지각과 감정은 정(情)이다.

이처럼 심통성정(心統性情)의 설명에서 심(心), 성(性), 정(情)의 유기적 관계를 주자의 말을 빌려 설명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예시를 풍부하게 제시한다면 교과 내용의 이해를 더욱 고취시킬 수 있다.

D사: “주희는 인간의 본성도 이와 기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구분하였는데, 본인지성이란 본래 이(理)에서 유래하여 순선무악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을 가리키는 말이며, 기질지성이란 기(氣) 속에 놓여 기의 영향을 받는 성으로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두 가지 본성은 한 가지 성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주희는 기질을 잘 다스리면 본연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²⁾

주자는 심(心)은 기(氣) 중에서 가장 정밀하고 순수·영명한 것으로 생각했다. 즉 사물 중에서 가장 정상하고 신명한 기(氣)가 바로 그 사물의 심(心)인 것이다. 심(心)은 우주 내의 모든 존재가 다 가진 것으로 심(心)이 하

22) 김선욱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p.50.

는 일 중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지각(知覺)이다. 지각(知覺)은 심(心)이 작용(作用)할 때 갖는 능력으로 오감을 통해 느껴지고 들어오는 안과 밖[內外]의 모든 자극, 심(心) 자체의 변화에 대한 반응을 말한다. 심(心)은 이렇게 지각(知覺)을 한 후 그 내용에 대해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다. 즉, 심(心)은 몸의 주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며, 사유의 의미도 있다. 심(心)은 몸속에 있는 지휘자로 비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心)과 성(性), 정(情)에 대해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性이란 것은 天이 사람에게 명령한 것으로서, 心에 갖춰진 것이다. 情이란 것은 性이 만물에 응하는 것으로서, 心에서 나오는 것이다. 心이란 것은 사람의 一身을 주재하는 것이며, 性과 情을 통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의예지는 성으로서, 心의 體가 되며, 측은 수오 공경 시비는 情으로서, 心의 用이 된다.”²³⁾

인의예지(仁義禮智) 성(性)의 사덕(四德)은 심(心)의 체(體)이고, 사단(四端)은 심(心)의 작용(用)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서술이 간략하게나마 교과서에 실려 있다면 학생들은 심통성정(心統性情)의 내용에 대해 한결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 개의 교과서밖에 다루지 않고 있고, 내용이 소략하여 의미 있는 학습을 기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에 관한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성(性)에 관한 이야기가 이(理)와 기(氣)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설명을 시작하지만,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 이기론(理氣論)이 어떻게 심성론(心性論)의 바탕이 되는지에 대한 연계가 부족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

23) 『朱子大全』別集, 8권, 釋氏論上 : 性也者天之所以命乎人 而具乎心者也 情也者性之所以應乎物 而出乎心者也 心也者人之所以主乎身 而以統性情者也 故仁義禮智者性也 而心之所以爲體也 惻隱羞惡恭敬辭讓(一作是非)者情也 而心之所以爲用也.(윤용남, 『朱子 心說의 體用理論的 分析』, 『동양철학연구』, 2005, p.300에서 재인용)

은 내용을 추가 서술하면 내용의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성(性)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氣)가 있어야 하고, 하늘[天]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氣)가 하늘이 정해놓은 대로 움직이고 시키는 대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은 기(氣)가 하늘[天]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하늘[天]의 이(理)와 기(氣)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성(性)이 생기는 것이다.²⁴⁾ 쉽게 비유하자면 하늘[天]의 명령은 건축물을 만들 때 골조를 세우듯 그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초 작업인 것으로 뼈대나 틀이 된다. 이 뼈대나 틀에 건축자재로 속을 채워 넣고 꾸미듯 기(氣)로 살을 붙이고, 속을 넣으며 물건을 완성하는 것이다.²⁵⁾

모든 존재의 성(性)은 다 선하지만, 그 성(性)을 받아 사람이 될 때 하늘[天]의 많은 기(氣)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산모의 기운이 맑고 밝을 때는 좋은 기(氣)를 발산하므로 그때 생겨나는 아기도 그 좋은 기(氣)를 받아 좋은 사람이 된다. 이것은 사람의 유전자를 받은 존재는 그 유전자대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 유전자를 받을 당시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 좋은 기(氣)를 받으면 지혜롭고 어진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기(氣)를 받으면 어리석고 불순한 사람이 된다. 가령 태교를 잘하고 산모의 마음이 편안하며, 건강관리를 잘하면 지혜롭고 어진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한 반대 상황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나면 서부터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인정이 많은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다.²⁶⁾

본연지성(本然之性)은 주는 자의 관점에서 주로 말하는 것이고, 기질지성(氣質之性)은 받은 자의 처지에서 말하는 것이다. 코치가 선수에게 1등을 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으나, 선수의 능력은 10등도 벽찬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24) 윤용남, 「朱子 性說의 構造的 理解」, 『유교사상연구』, 2012, p.269.

25) 위의 논문, p.276.

26) 위의 논문, p.299.

서 1등은 본연지성이고, 10등은 기질지성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선수의 능력을 고려해보았을 때, 10등을 하려면 1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야 10등을 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목표를 10등으로 삼으면 10등도 어려울 것이다. 또 이왕 목표를 정할 거라면 1등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아무리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1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지라도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 9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올라가지 못할 나무라 할지라도 목표는 1등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학에서도 항상 성인을 목표로 하며, 그 이하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이다.²⁷⁾ 이것이 바로 기질지성(氣質之性)을 성(性)으로 하지 않고 본연지성(本然之性)을 성(性)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심성론(心性論)이 수양론(修養論)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밝혀주는 내용과 이기론(理氣論)을 성설(性說)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내용을 추가 서술하면 내용적 연결이나 심층적인 측면이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3) 수양론(修養論)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제시된 주자의 수양론(修養論)과 관련된 내용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사: “사람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①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참모습을 밝게 알아야 하고[격물치지(格物致知)],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도록 노력하며[존양성찰(存養省察)], 항상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할 것[거경(居敬)]을 수양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여[존천리거인욕(存天理

27) 윤용남, 「朱子 性說의 構造的 理解」, 『유교사상연구』, 2012, p.297.

去人欲]]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②경(敬)이란 유교 사상에서 강조되는 도덕정신으로 대체로 공경함(恭)·엄숙함(肅) 또는 삼가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음.”²⁸⁾

성리학에 따르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기질(氣質)의 영향으로 선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선천적으로 부여된 선한 본성을 유지하고 완전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수양 방법이다. A사에서 수양 방법으로 거론하고 있는 내용은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존양성찰(存養省察) 그리고 거경(居敬)이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제시한 수양 방법들이 왜 성인이 될 방법인 것인지 이해할 만한 설명이 한 군데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①격물치지(格物致知)의 경우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이 왜 성인이 되는 방법인가? 사물의 궁리(窮理)를 통해 사물의 이치를 알고 나면 그 깨달음은 나의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은 누적되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드러나게 한다. 사물의 궁리(窮理)를 거친 후에야 내 마음속 이(理)도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외부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서 내재하여 있었던 도덕 원칙이 밖으로 드러나고, 이것은 도덕관념을 형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격물치지(格物致知)는 내가 갈 길[道]을 아는 것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성인이 되는 수양 방법이 되는 것이다.

격물치지(格物致知), 존양성찰(存養省察) 그리고 거경(居敬)의 수양 방법은 각기 독립적인 수양 방법이 아니다. 수양 방법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A사의 수양론 내용을 읽어보면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나열하는 것에 그쳐 마치 각기 다른 수양 방법을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먼저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려면 ‘경(敬)’하여 정신을 집중시켜 잡념이 일

28) 박효중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교학사, p.46.

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격물치지(格物致知) 이전에 ‘경(敬)’을 하여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양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내 안의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격물치지(格物致知), 존양성찰(存養省察) 그리고 거경(居敬)의 관계를 설명해주면서 수양법에 관해 서술하는 것이 학습의 이해도를 더욱 높이는 방법이다.

또한 ②경(敬)에 대한 개념설명이 학생들의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 A사에서는 경(敬)이 공경함(恭)·엄숙함(肅) 또는 삼가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공경함은 경(敬)할 때의 태도이며 엄숙함은 경(敬)의 자세가 정신과 마음 그리고 몸가짐에 미친 효과를 뜻한다. 따라서 ‘경(敬)=공경함, 엄숙함’과 같은 공식은 경(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오히려 주자의 수양론(修養論) 이해를 돕기 위한 경(敬)의 개념설명은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정신을 똑바로 기립하여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 혹은 정신차려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신차려의 뜻으로 풀이할 시에는 일이 없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세분화하여 설명하면 더욱 좋다.

B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存天理去人慾] 수양을 강조하였다. 즉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할 것[存養省察]과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하여 사물 속에 존재하는 이치를 궁구할 것[居敬窮理],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양공부를 할 때 경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①경(敬)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주일무적(主一無適))], 몸가짐과 태도는 단정하고 엄숙하게 하며[정제엄숙(整齊嚴肅)], 항상 깨어 있어 정신을 뚜렷이 한다[(상성성(常惺惺))]는 의미를 담고 있다.”²⁹⁾

29) 박병기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지학사, p.52.

A사와 마찬가지로 수양 방법 열거에 그쳤으며 그 관계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경(敬)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술한 내용에 뒤이어 경(敬)에 대한 설명이 다른 교과서보다 상세하다. 물론 퇴계의 수양론(修養論)에서 경(敬)에 대한 설명을 이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한 교과서들도 있지만, 퇴계의 수양론(修養論) 기초가 되는 주자의 수양론(修養論)에서는 B사의 설명이 구체적이다. 하지만 경(敬)에 대한 설명 중 아쉬운 부분도 있다. ①경(敬)의 의미를 주일무적(主一無適), 정제엄숙(整齊嚴肅), 상성성(常惺惺)으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경(敬)의 의미는 정신차려이고, 정신을 차리면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 흐트러지지 않으며, 흐리멍덩한 마음이 깨어나 본래 맑고 밝은 마음으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 정신이 뚜렷하려면,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한 바른 몸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정제엄숙(整齊嚴肅)은 경(敬)의 공부 방법이 되고, 주일무적(主一無適)과 상성성(常惺惺)은 거경 시 마음의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

C사: “①거경궁리론은 도덕을 실천하여 인격적으로 완성된 군자나 성인이 되는 방법에 관한 이론이다. 주자에 따르면 순전한 본연지성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본연지성이 기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양이 필요하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인간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참모습을 밝게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格物至治]그래서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먼저 알아야 그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을 강조하였다. 주자는 이와 더불어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해야 한다[存養省察]는 내적 수양도 강조하였다. 주자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간은 천리를 보존하고 이기적 욕망을 제거하여[存天理去人慾]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³⁰⁾

C사의 경우 내적 수양과 외적 수양을 구분하고, 앎과 행동에 대한 선후관계 그리고 경중에 관한 내용까지 보다 세밀하게 수양론(修養論)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격물치지(格物致知)가 이상적 인간, 성인이 되는 방법인 이유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어 다른 교과서 보다 더 이해가 잘 된다. 다만 첫 문장인 ①거경궁리론(居敬窮理論)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하다면 뒤 내용의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성리학에서는 본래의 성(性)을 완전히 발현하기 위한 노력, 실천, 수양을 모두를 공부라고 칭하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거경(居敬)과 궁리(窮理)를 제시한다. 거경(居敬)이란 몸과 마음을 집중한 전일(專一)의 상태를 말하고 궁리(窮理)란 사물의 이(理)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경궁리론(居敬窮理論)은 도덕을 실천하여 인격적으로 완성된 군자나 성인이 되는 방법에 관한 이론이다. 이와 같이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에 대한 정의 언급 및 성리학에서의 수양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만 하더라도 주자의 수양론(修養論)에 대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D사: “본연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해 지식을 확보하고,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존양성찰(存養省察)’을 통해 도덕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항상 마음을 경건하게 해야 하며[居敬],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存天理去人慾]하여 도덕성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다.”³¹⁾

D사 역시 주자의 수양론(修養論)은 단순 나열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머무르고 있다. 이는 마치 내용을 개념 중심으로 간략하게 암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30) 정창우 외 11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미래엔, p.44.

31) 김선옥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p.50.

본문 및 부연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양 방법들의 연계성과 의미를 부각해야 할 것이다.

기질에서 오는 안 좋은 영향들을 제거하여 선한 본성을 발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수양공부이다. 주자가 제시한 수양공부로 격물치지(格物致知), 거경함양(居敬涵養)을 들 수 있다. 격물치지(格物致知)와 격물궁리(格物窮理)는 병행하여 쓸 수 있는 표현하기도 하며, 사물에 대한 이(理)를 이해하는 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지식을 탐구하는 수단이 된다. 한편 이와는 달리 거경함양(居敬涵養)은 내면적 자기 성찰로, 주자는 격물치지(格物致知)와 거경함양(居敬涵養)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며 모두 강조한다. 궁리(窮理)하게 되면 함양(涵養)공부가 더욱 발전하게 되고, 함양(涵養)하게 되면 궁리(窮理) 공부도 더욱 정밀해지기 때문이다.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려면 ‘경(敬)’으로 일체의 모든 잡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정신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함양이다. 그래서 궁리(窮理) 이전에 ‘경(敬)’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는 함양이 요구된다. 즉, 함양은 정밀한 궁리(窮理)를 하는 데 있어 궁리(窮理)하는 주체자의 조건을 갖추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궁리(窮理)와 함양은 서로를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함양으로 근본이 세워지고 궁리를 할 준비조건이 갖춰지면 궁리(窮理)의 내용도 더욱 밝아지게 된다.³²⁾

천리(天理)란 하늘이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부여한 보편적 도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를 구성하는 기질의 영향으로 육체적 욕망, 즉 인욕(人欲)이 생겨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天理)를 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써 사람의 심(心)은 하나인데 도리에 맞고, 합당한 것은 천리(天理)가 되고, 육체적 욕망을 따르는 것은 인욕(人欲)이 된다. 이렇게 볼 때

32) 안유경,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 세문사, 2005, p237-238.

인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존천리(存天理) 거인욕(去人欲)’이라고 말한 것도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두 가지의 다른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것이 곧 인욕을 제거하는 것을 뜻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것이 곧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일인 것이다.³³⁾

위와 같이 수양론에서 이러한 수양 방법을 어떤 이유에서 제시하였고 수양 방법 간에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있어야만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져 스스로 현대적 의미에서 재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퇴계(退溪)의 성리설(性理說)

1) 이기론(理氣論)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제시된 퇴계의 이기론(理氣論)과 관련된 내용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사: “이황은 ‘이’는 원리적인 개념으로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고, ‘기’는 현상적 개념으로 선악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순선한 ‘이’는 존귀한 것이고, 선악이 혼재한 ‘기’는 비천한 것[이존기비(理尊氣卑)]으로 규정하였으며, (...) ①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항상 선하고[순선무악(純善無惡)], ‘기’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가선가악(可善可惡)]고 보아, ②순선한 ‘이’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나 ‘기’는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

33) 위의 책, p.252.

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³⁴⁾

A사의 경우 퇴계의 이기설(理氣說)을 이존기비(理尊氣卑)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단(四端) 칠정(七情)을 이야기하며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설명하고, ①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의 부연설명으로 교과용 교과서에 이(理)의 능동성을 인정한다고도 서술하였다. 여기서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설명하며 이(理)의 능동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퇴계의 이기설(理氣說)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말이다.

퇴계는 우주 내의 모든 사물을 이기합(理氣合)의 존재로 생각한다. 주자가 만물이 생성될 때 이(理)가 먼저 있고 그 이(理)를 근거로 하여 기(氣)가 만물을 형성하는 재료로 작용하여 만물이 생성된다고 보는 주장을 하는 데 반해, 퇴계는 이기합(理氣合)의 하늘[天]이 명령을 내려 이기합(理氣合)의 만물을 생성한다고 본다. 이때 이(理)는 주자의 주장처럼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理)와 기(氣)가 동시에 서로 의지하면서 존재해 나간다고 본다. 이러한 퇴계의 이기설(理氣說)은 이(理)와 기(氣)가 상수관계(相須關係)에 있다고 본다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이(理)와 기(氣)는 서로 의존하며 돕는 관계로 우리 몸의 두 팔, 두 다리로 비유할 수 있다.

이기합(理氣合)의 물건에서 이(理)의 역할을 퇴계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물건의 안에서 소이연(所以然)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물건과 관계를 맺을 때 소당연(所當然)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理)가 소이연(所以然)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물건이 동정하도록 하게끔 하는 이(理)이고, 소당연(所當然)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물건이 가야 할 도리, 지켜야 할 표준을 말한 것으로 물건 내의 이(理)와 연결되어 그 물건을 움직이게 한다. 이것이 바로 퇴계 이기설(理氣說)의 요점이다. 퇴계는 이(理)의 능동성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이(理)가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34) 박효중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교학사, p.53-54.

라는 의미는 소이연(所以然), ‘형이상학적 이유로서의 동정’으로 소당연적 가치, 도리 등의 이유에서의 동정을 말한 것이다. 또한 기(氣)없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동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것의 명령이나 구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혼자 동정하는 최초의 원인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理)의 동정이 기(氣)의 동정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퇴계가 주자와는 다른 이기(理氣)의 관계를 보는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서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②순전한 ‘이’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나 ‘기’는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라는 문장 또한 의미가 추상적이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리하여 문제의 성격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든지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다.

B사: “우주의 존재 문제에 대해 ‘이(理)’는 ‘기(氣)’의 주재자로서 기를 부를 뿐 기에 구속되지 않아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이를 우위로 생각하여 이와 기는 결코 대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그는 이와 기가 모두 발동한다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전쟁터에서 졸병[氣]이 항상 장수[理]의 통제와 명령을 받아야 하는 듯이, 이를 중심으로 당시 사회의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이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⁵⁾

B사의 교과서 역시 이존기비와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대해 다루고 있는

35) 박병기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지학사, p.59.

데, 이(理)와 기(氣) 모두 운동성과 자발성을 인정하였다고 서술한 부분에 이(理)의 운동성이 기(氣)의 운동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B사의 교과서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질병과 장수에 비유하여 장수로 비유되는 이(理)가 기(氣)에게 명령을 내리고 기(氣)가 이러한 명령에 순응하여 이(理)가 저절로 드러나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한 퇴계의 목적과 의지를 짚어주었다는 것이다.

C사: “①주자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理)와 기(氣)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주자는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 동시에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理氣不相離]고 하였다. 이황은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와 기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理氣不相雜]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와 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러한 이황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주자의 이기론(理氣論)을 계승한 것이다. 그는 원리적인 개념인 이가 기보다 우위에 있어 귀하다고 보는 이귀기천의 입장에서 이기론을 전개하였다.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대해 이황은 기대승과의 ‘사단 칠정 논쟁’을 통해서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발전시켰다. 이기호발설이란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 위에 타는 것이다[四端理發而氣隨之七情氣發而理乘之].”라는 것으로, 이와 기가 모두 발(發)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처럼 사단과 칠정은 그 발하는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理)의 운동성과 자발성을 인정하며 이(理)를 우위에 놓는 이황의 독특한 시각이다.”³⁶⁾

C사는 퇴계의 이기설(理氣說)을 가장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고 있다. 이기

36) 정창우 외 11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미래엔, p.59.

(理氣)의 관계를 보는 관점 중 퇴계는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離)의 관점으로 이(理)와 기(氣)를 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을 이어 이귀기천의 내용까지 설명한다. 그리고 다른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대한 설명을 이(理)의 운동성과 자발성을 인정하고, 이(理)의 동정이 마치 기(氣)의 동정과 같은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 또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이(理)의 동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①주자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理)와 기(氣)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지만, 주자의 경우 이(理)가 기(氣)보다 먼저 존재하여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뿌리로 존재한다고 보는 반면 퇴계는 이(理)와 기(氣)가 어느 것이 우선이라 할 것 없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만물을 생성한다고 본다. 즉 이기(理氣)에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자와의 공통점을 비롯한 차이점도 언급해준다면 성리학의 이기설(理氣說)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D사: “퇴계 이황은 ‘이(理)’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리로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고, ‘기(氣)’는 현상적 개념으로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황이 ‘사단은 이가 발하는데 기가 따르는 것이고[理發而氣隨之], 칠정은 기가 발하는데 이가 타는 것[氣發而理乘之]’으로 조정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이황의 견해를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이라고 한다.”³⁷⁾

D사 역시 다른 출판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A~D사까지 퇴계의 이기론(理氣論)에 대해 다른 내용은 이존기비(理尊氣卑),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이다. 그런데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대한 이론을 설명할 때, 이(理)의 운동성과 자발성을 인정하는 맥락으로 혹은 그렇게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퇴계가

37) 김선욱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p.58.

말하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의 의도를 학생들이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은 원인이 다르므로 이발(理發), 기발(氣發)로 나눈 것일 뿐 실제로 이(理)가 기(氣)처럼 작용성, 운동성을 갖고 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理)가 능동적으로 동정한다.’라는 의미는 소이연(所以然)으로서의 동정, ‘형이상학적 이유로서의 동정’으로 소당연적 가치, 도리 등의 이유에서 동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기(氣)없이 혼자 동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것의 지시나 구속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동정할 수 있는 최초의 원인자라는 의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理)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항상 기(氣)와 합해야 하고, 기(氣)의 동정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동정하는 것은 氣이고, 동정하게 하는 까닭은 理이다.”

“그 날거나 뛰는 것은 진실로 氣이지만, 날게 하거나 뛰게 하는 까닭은 바로 理이다.”³⁸⁾

퇴계 주장인 이(理)가 발동한다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기발(氣發)의 발은 축구공을 부딪치는 것과 비슷하고, 이발(理發)의 발은 친구들과 어울려 잘 놀다가 갑자기 어떤 것에 이끌린 것 마냥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는 학생의 충격과 비슷하다. 이것은 학생은 공부해야 한다는 도리가 소이연(所以然)이 되어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따라서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설명할 때에는 기발(氣發)과 이발(理發)의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은 내용은 퇴계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을 이기합(理氣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퇴계의 관점은

38) 『退溪全書』, 40권, 答宥姪問目中庸: 其飛其躍, 固是氣也, 而所以飛所以躍者, 乃是理也.(윤용남, 「退溪 性理說의 體系的 理解」, 『동양철학』, 2014, p.139에서 재인용)

심성정설(心性情說)과 사칠론(四七論)까지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마치 연결고리가 빠진 기계같이 흐름이 끊겨 단순한 개념적 이해에 머무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모든 물건은 기(氣)와 그 기(氣)의 이(理)가 결합하여 있는 것이고, 이(理)와 기(氣)는 서로 섞이지도 분리되지도 않으며, 둘이면서도 서로 의지하고 돕는 관계로 물건 속에 존재한다는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또 이러한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보는 퇴계의 관점은 이(理)가 근본처럼 먼저 존재한다는 주자의 주장을 부정한다는 것을 비교 서술하면 내용의 긴밀성을 갖출 것이다.

2) 사칠론(四七論)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제시된 퇴계의 사칠론(四七論)과 관련된 내용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사: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에 관한 논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단을 절대적으로 선하고 칠정은 선악이 섞인 것으로 보고 ①사단과 칠정의 원천을 ‘이’와 ‘기’로 분리하였다. 그래서 ‘사단은 이가 발현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이며, 칠정은 기가 발현하나 이가 기에 탄 것[기발이이승지(氣發而理乘之)]’이라고 하여 이기호발(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³⁹⁾

사단칠정(四端七情)의 이론 설명을 매우 단편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퇴계 사칠론(四七論)의 경우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과 관계가 깊은데 A사의 교과서에서는 이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 학습자의 관점에서 퇴계

39) 박효중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교학사, p.53.

의 사칠론(四七論)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①문장에서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원천을 이(理)와 기(氣)로 분리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사단칠정(四端七情)의 원천은 엄밀히 따져보면 성(性)에서 나오는 것으로 모두 선한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원칙대로 되지 않고 잘못되면 악(惡)이 되는 것이다. 즉 사단(四端)은 이(理)가 기(氣)에 가릴 때 악(惡)이 되는 것이고, 칠정(七情)은 기(氣)가 이(理)를 덮을 때 악(惡)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악(惡)이 되는 그 모습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퇴계의 사칠론(四七論)은 이기론(理氣論)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퇴계는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서로 의지하는 상수관계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사칠론(四七論)에도 영향을 주었고, 모든 우주 내의 사물을 이기합(理氣合)으로 보는 견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理)가 발함에 기(氣)가 그것을 따르는 것과 기(氣)가 발함에 이(理)가 타는 것은 모두 마음[心]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心]은 이기합(理氣合)이므로 이(理)와 기(氣) 모두 마음[心] 내에 있는 성(性)과 기질이라 할 수 있으며, 퇴계는 마음[心]이 작동하는 모습을 설명하며 이(理)와 기(氣)가 서로 의지하는 상수관계임을 말한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사칠론(四七論)을 설명할 때 이기론(理氣論)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제시하면, 퇴계가 이기(理氣)의 관계를 왜 상수관계로 보았는지 이해가 깊어질 수 있으며, 사칠론(四七論)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명확히 알아 사고를 확장 시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B사: “이황은 인간의 마음은 이와 기를 함께 지니고 있지만 마음의 작용은 이가 발동하여 생기는 사단과 기가 발동하여 생기는 칠정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즉 사단(四端)과 칠정이 ‘가리키는 바’를 통해 볼 때, 사단은 순선하므로 이에 비유되고, 칠정은 선과 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기에 비유된다는 것이다. 또 “사단은 이가 발동하여 기가 이를 따른 것이고[理發而氣隨之], 칠정은 기가 발동하여 이가 기를 탄 것이다[氣發而理乘之].”라고 주장하였다.“40)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모두 정(情)에 속한다.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까닭은 이 둘의 소종래(所從來)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교과 내용 중 이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 기발이리승지(氣發而理乘之)에 대해 단순한 의미풀이에 그치지 않고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학생들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시로 사단칠정(四端七情)의 발현과정을 도식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

“사단(四端)이 이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하는 과정: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사단]← 기질이 이(理)의 명령에 따른다[기수]← 이(理)가 도움을 주라고 한다[이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도심]←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보인다.

칠정이 기발이리승지(氣發而理乘之)하는 과정: 내 마음은 기쁘다[칠정]← 리가 기질의 반응을 승인한다[리승]← 기질이 몸의 반응에 동조한다[기발]← 나의 육체가 내가 초콜릿을 좋아하고 있음을 알았다[인심]← 초콜릿이 보인다.”41)

위의 도식은 모두 마음[心] 안에서 일어난 일을 표현한 것으로 마음[心]의 반응을 역방향으로 추적하여 도식화해보고 이것을 다시 이(理)와 기(氣)를 주체로 하여 대입하여 설명하였다. 이 도식은 퇴계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40) 박병기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지학사, p.60.

41) 윤용남, 「朱子 敬說의 體系的 理解」, 『윤리교육연구』, 2014. p.165. 본 논문을 참조하여 수정하였다.

것으로 학습자로서도 사칠론(四七論)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C사: “사단은 마음의 이(理)가 직접 발동한 것으로 순수한 선이며, 칠정은 기(氣)가 발한 것으로 그 위에 올라탄 이가 주재 능력을 발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단과 칠정은 그 발하는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⁴²⁾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모두 선악(善惡)을 겸한다. 사단(四端)은 원래 순수한 선이기는 하지만 기(氣)에 가려서 이(理)대로 되지 않으면 악(惡)이 될 수 있고, 칠정(七情)은 사단(四端)처럼 선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이(理)를 어기면 악(惡)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D사: “사단(四端)은 이가 발한 것이고[四端理之發], 칠정은 기가 발한 것 [七情氣之發]이라고 하여, 사단은 순선하고 칠정은 선악이 함께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은 사단은 인간의 선한 마음이고 칠정은 인간의 모든 마음을 지칭하기 때문에 사단 또한 칠정 속에 포함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발(理發)과 기발(氣發)로 나누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황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장장 8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논쟁하였는데, 이를 사단 칠정(四端七情) 논쟁이라고 한다. 이 논쟁은 이황이 ‘사단은 이가 발하는데 기가 따르는 것이고[理發而氣隨之], 칠정은 기가 발하는데 이가 타는 것[氣發而理乘之]’으로 조정하면서 마무리되었다.”⁴³⁾

42) 정창우 외 11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미래엔, p.59.

43) 김선옥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p.58.

퇴계가 말한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이야기할 때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퇴계 사칠론의 단편적인 면만을 서술하여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퇴계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은 다른 선유보다 사칠론(四七論)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 퇴계 사칠론(四七論)의 착안은 인심도심(人心道心)에 있기 때문이다.

“인심은 칠정이 되고 도심은 사단이 된다는 것은 중용서문의 주자설과 동양 허씨의 설을 가지고 보면 진실로 안 될 이유가 없다. (...) 그러나 만일 각각 그 이름과 실제에 대해서 자세히 논한다면, 인심이라는 이름은 이미 도심과 상대하여 성립된 것이니, 곧 자기 신체상의 사유물에 속한다. 대개 사유물이라고 하면 이미 한쪽에 속한 것이다. (...) 칠정과 같은 것에 이르면 비록 氣에서 발하였다고 하나 실은 공평하고 중립적인 이름으로 한쪽에 속한 것이 아니다.”⁴⁴⁾

마음[心]에서 정(情)이 발했을 때, 사단(四端)의 근원은 인의예지의 성(性)이고, 칠정은 육체로부터 생긴다. 퇴계는 이러한 근원들을 다시 주체로 바꿔 설명한다. 이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란 성(性)의 변화를 마음[心] 내의 기질이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사단(四端)이고, 이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인 것이다. 한편 기발이리승지(氣發而理乘之)란 육체가 변화함에 따라 마음[心] 내의 기질이 이러한 변화에 응하고 이를 받아들여 성(性)이 그 갈 길을 제시함으로써 마음[心] 전체가 움직였다면 이것은 칠정(七情)이다. 여기서 인심도심(人心道心)이란 성(性)과 몸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며, 그러

44) 『退溪全書』, 37권, 答李平叔: 人心爲七情, 道心爲四端, 以中庸序朱子說及許東陽說之類觀之, 二者之爲七情四端, 固無不可.……但若各就其名實而細論之, 則人心之名, 已與道心相對而立, 乃屬自家體段上私有底. 蓋既曰私有, 則已落在一邊了.……至如七情, 則雖云發於氣, 然實是公然平立之名, 非落在一邊底.(윤용남, 「退溪 性理說의 體系的 理解」, 『동양철학』, 2014, p.155에서 재인용)

므로 정(情)은 인심도심(人心道心)으로부터 시작한다.⁴⁵⁾

퇴계는 칠정(七情)과 사단(四端)의 발현과정을 다르게 표현한다. 외부의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이에 따른 육체의 반응이 있는 것이 칠정(七情)이다. 하지만 사단(四端)은 외부의 작용이 있어 오감이 이러한 작용을 감지하고, 이것에 대해 적절한 판단과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반응이 없을 수 있다. 즉 내 마음[心]의 성(性)이 소이연(所以然)으로서 마음[心]을 움직이게 하여야만 비로소 정(情)이 발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心]이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반응할 때, 하나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에 대한 도리를 행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을 담고 있는 몸과 관련한 일을 하려는 것으로 나뉜다. 여기서 도심(道心)과 인심(人心)으로 나뉘는데 먼저 도심(道心)은 도리에 관한 일을 지각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마음은 사단(四端)으로 발현한다. 반면 인심(人心)은 육체와 관련한 일을 지각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마음은 칠정(七情)으로 발현한다. 이것을 비유해보자면 사람이 말 위에 타고 있는데, 이 둘이 외출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동수단으로 말을 타고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을 주체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이다. 외출을 하는 이유가 전자는 사람 때문이고, 후자는 말 때문이다. 이러한 비유에서 전자는 도심(道心)-사단(四端)이고, 후자는 인심(人心)-칠정(七情)으로 대입할 수 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란 일을 하러 가거나 놀러 가는 등의 여러 일이 있을 수 있고, 말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 밥을 먹어야 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등의 일이 있다. 이렇게 사람과 말을 나누어 말하는 것이 바로 퇴계의 사칠론(四七論)이다. 이 비유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 때문에 말이 움직인 것을 이발(理發)이고, 말이 해야 할 일 때문에 사람이 움직인 것을 기

45) 위의 논문, p.161.

발(氣發)이다.⁴⁶⁾

이렇듯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모두 성(性)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선한 것이 원칙이나 잘못되면 악(惡)이 된다. 즉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선악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四端)의 본모습은 원래 순선하지만 기(氣)에 가려서 이(理)대로 하지 못한다면 악(惡)이 되고, 칠정(七情)은 기(氣)가 이(理)보다 강하여 이(理)를 어기면 악(惡)이 된다.

위와 같은 자세한 설명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이론들을 추가 서술한다면 내용 구성의 짜임새가 촘촘해질 것이다.

3) 경설(敬說)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제시된 퇴계의 경설(敬說)과 관련된 내용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사: “‘기’를 선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경(敬)의 실천이다. ①경은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한다[주일무적(主一無適)]는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끊임없는 수양을 통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경(敬)’은 성과 함께 거론되는 개념이다. 성이 선천적인 천도(天道)의 문제라면, 경은 후천적인 노력과 관련된 인도(人道)의 문제라 할 수 있다. ②이는 마음을 한곳으로 집중하여 다른 곳으로 분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절제되고 엄숙한 생활[정제엄숙(整齊嚴肅)] 자세로 구체화 된다. 일상에서 항상 물욕이 본심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절제된 생활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 바로 경이다.”⁴⁷⁾

46) 윤용남, 「退溪 性理說의 體系的 理解」, 『동양철학』, 2014, p.163.

47) 박효중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교학사, p.54.

A사는 다른 교과서보다 퇴계의 경(敬)을 상대적으로 자세히 서술하였다. 하지만 퇴계의 경설(敬說)이 의미하는 바에 비하면 내용이 미약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퇴계는 경(敬)을 모든 인간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두고 본인의 가치관과 학문의 끝을 경(敬)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경(敬)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며 인간의 성(性)대로 나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

A사의 교과서에서 퇴계의 경(敬)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주일무적(主一無適)과 정제엄숙(整齊嚴肅)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맥락을 보면 경(敬)의 실천방법으로 ①주일무적(主一無適)을 제시하는데 주일무적(主一無適)을 경(敬)의 실천방법으로 보기보다는 경(敬)을 했을 때의 마음[心]의 상태로 보는 것이 알맞다. 경(敬)의 의미인 정신차려를 생각해 보면, 정신을 차리면 생각을 집중할 수 있고 잡념은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주일무적(主一無適)은 경(敬)의 중요성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경(敬)을 실천했을 때 우리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②정제엄숙(整齊嚴肅)을 서술한 맥락을 살펴보면 ‘절제된 생활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 경(敬)이다.’라는 문장에서 정제엄숙(整齊嚴肅)이 마치 경(敬)의 의미처럼 오해할 수 있을 만하다. 정제엄숙(整齊嚴肅)은 경(敬)의 공부 방법의 하나다. 외면을 다스림으로써 정신과 마음이 한군데로 집중할 수 있고 이것은 몸가짐이 정신과 마음에 미친 효과이다. 이처럼 명확하게 경(敬)의 중요성 및 경(敬)을 실천하면서 미치는 효과까지 체계적인 퇴계의 경설(敬說) 서술이 필요하다.

B사: “이황의 수양론 경(敬): 정제엄숙, 주일무적, 상성성”⁴⁸⁾

B사의 경우 퇴계의 수양론 중 대표적인 정제엄숙(整齊嚴肅), 주일무적(主一無適), 상성성(常惺惺)을 기재해 두기는 했지만, 각각의 의미와 경(敬)과의

48) 박병기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사용 교과서, (주)지학사, p.60.

관계가 서술되어있지 않아 경(敬)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학습자의 처지에서 본 내용을 본다면 경설(敬說)의 매우 얇은 지식만을 암기하는 것에서 그칠 뿐이다. 따라서 경(敬)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먼저 주일무적(主一無適), 상성성(常惺惺)은 거경(居敬) 시 마음[心]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정신을 차리면 마음이 기립하고 자연스레 마음을 깨울 수 있다. 마음을 깨운다는 것은 마음이 수렴하고 보존되는 것으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중(中)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생각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제엄숙(整齊嚴肅)은 몸과 마음[心]이 서로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받음을 알 수 있는 공부 방법으로 바른 몸가짐은 올바른 마음을 유발하고, 올바른 마음은 바른 몸가짐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다. 따라서 정제엄숙(整齊嚴肅)은 외부의 경(敬)이라 표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기재한다면 학생들은 퇴계의 경설(敬說)에 대한 체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것이다.

C사: “이황의 인격 수양의 방법으로 거경궁리(居敬窮理)를 강조하였다. 그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지식을 넓히는 ‘궁리’뿐만 아니라, ‘거경’을 특히 강조하였다. 즉 기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를 항상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경(敬)의 실천을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다.”⁴⁹⁾

퇴계가 경(敬)의 실천을 중요하게 보았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내용의 깊이를 보면 경(敬)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경(敬)의 실천 방법이나 경(敬)을 실천하면 어떻게 기(氣)를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49) 정창우 외 11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미래엔, p.59.

경(敬)의 실천방법 즉 공부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자가조존법(自家操存法), 정제엄숙(整齊嚴肅), 정좌(靜坐)가 그것이다. 성인들은 저절로 경(敬)을 할 수 있는 자연경(自然敬)의 상태에 이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경(敬)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가조존법(自家操存法), 정제엄숙(整齊嚴肅), 정좌(靜坐)는 경(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다.

먼저 자가조존법(自家操存法)은 ‘본인 스스로 바로 잡아 보존하는 법’이란 뜻으로 경(敬) 공부의 첫째 방법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스스로 바로 잡아 보존해야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산만한 것을 바로 잡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신을 바로 잡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제엄숙(整齊嚴肅)은 몸가짐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다. 정신이 맑고 기립해있으면 몸가짐에서도 정신을 반영한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이 새어 나온다. 또한, 육체와 정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몸가짐이 엄숙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면 마음[心]과 정신 역시도 가지런히 수렴된다.

마지막 정좌(靜坐)의 방법은 주로 사용한 공부 방법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좌(靜坐)란 해야 할 일이 없을 시에 앉아서 외부의 경(敬) 공부를 하는 것이다. 외부의 경(敬)이란 육체로서의 경(敬)을 의미한다. 즉, 할 일이 없을 때 잠시 쉬는 것이 정좌(靜坐)이다. 정좌(靜坐)하면서 정신을 바로 세워 다음에 있을 일을 맞이할 준비상태로 있는 것이다.

경(敬)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정신이 맑고 바로 서 있으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하는 일, 혹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경(敬) 공부가 미약하여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게 되면 자신의 의무와 당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흐리멍덩하고

흐릿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마음을 밝히는 공부 방법 및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신는다면 학습자들은 경(敬)에 대한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D사: “이황은 수양론으로 ‘경(敬)’을 강조하였다. ①경이란 마음을 한군데 집중하여 잡념이 들지 않게 하고[主一無適],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며[整齊嚴肅], 항상 깨어 있어서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常惺惺]으로 이황은 경을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⁵⁰⁾

D사 교과서 역시 ①주일무적(主一無適), 정제엄숙(整齊嚴肅), 상성성(常惺惺)을 경(敬)의 의미처럼 서술해 놓았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주일무적(主一無適), 상성성(常惺惺)은 경(敬)의 상태가 지속해서 유지되었을 때의 마음[心]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정제엄숙(整齊嚴肅)은 경(敬)의 공부 방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퇴계는 경(敬)의 의미를 인간이 참된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행위적 측면에서 찾았다. 공자의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하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진실로 깨달아 알고, 참으로 실천하는 단계’라 하였다. 다시 말해, 진정한 성리학이란 단지 깨닫고 배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실천하여 나, 사회, 더 나아가 우주적 실현까지 범위를 넓혀 천인합일(天人合一) 해야 한다. 그러므로 깨달음으로서의 생각과 배움으로서의 실천은 서로 발명하는 관계여야 마땅하다.⁵¹⁾

더 나아가 퇴계는 인간 내면의 경(敬)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 존재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자기 방향성, 존재하는 이유 및 근거, 자신을 대함과

50) 김선옥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p.58.

51) 이해영, 「이황의 수양론 - 성학십도와 경을 중심으로 -」, 『퇴계학』, 7권, 1995, p.53.

타인을 대함에서의 도리와 태도 등을 설명하고 찾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퇴계 경설(敬說)이 의미하는 바를 다룬다면 앞서 살펴 보았던 이기론(理氣論)과 사칠론(四七論)의 주장과 연계되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교과서가 공통으로 경설(敬說)의 내용을 매우 소략하게 다루고 있고, 경(敬)의 의미, 거경(居敬) 시 심(心)의 상태, 경의 공부법 등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선 경(敬)의 의미는 ‘정신 차려’이다. 마음이 정신을 그 안에 거느리고 있다는 전제하에 거경(居敬) 하면 마음은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잡념이 사라지는 주일무적(主一無適)의 상태가 된다. 즉,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한, 정신이 기립하기에 정신이 마음을 깨우게 된다. 이것은 흐릿한 마음을 또렷하게 깨우는 것이다. 이를 상성성(常惺惺)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거경(居敬) 시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에는 완전한 정신 차려의 상태가 되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이를 기심수렴불용일물(其心收斂不容一物)이라 한다. 이처럼 주일무적(主一無適), 상성성(常惺惺), 기심수렴불용일물(其心收斂不容一物)은 경(敬)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그리고 경(敬)의 공부법으로는 자신을 스스로 거두 잡아 보존하는 자가존존법(自家操存法),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마음을 가다듬는 정제엄숙(整齊嚴肅), 정좌(靜坐)가 있다. 이처럼 경(敬)의 실천방법, 거경(居敬) 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세분화해서 경설을 다루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모해보는다면 의미 있는 학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율곡(栗谷)의 성리설(性理說)

1) 이기론(理氣論)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제시된 율곡의 이기론(理氣論)과 관련된 내용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사: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현하고 이가 탄 것[기발이승 일도(氣發理乘一途)]’이라 하여,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부정하였다. ‘이’는 실체가 아니며 하나의 법칙이나 원리로서 ‘기’가 작용할 때 그 속에서 제어하는 것이라는 주장만 인정한 것이다. (...) ①‘이’와 ‘기’를 분리해서 본 이황과 달리,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강조하여 묘합의 원리[이기지묘(理氣之妙)]로 표현한 것이다. ②또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이통기국(理通氣局)]고 하여 ‘이’와 ‘기’가 서로 보완하며 의존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이는 ‘이’와 ‘기’는 현실 속에서 항상 함께 있는 것이라는 ‘이기 불상리(理氣不相離)’의 측면을 강조하였다.”⁵²⁾

율곡의 이기론(理氣論)에 대해 퇴계와 비교하여 설명되어 있어 비교되는 듯하나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아쉽다. 먼저 ①‘이(理)’와 ‘기(氣)’를 분리해서 본 이황과 달리,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강조하여 묘합의 원리 이기지묘(理氣之妙)로 표현한 것이라 서술되어있다. 여기서 퇴계와는 ‘다르다’라는 표현은 퇴계는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상호 보완 관계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앞서 보았듯이 퇴계 또한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상수관계로 보아 상호 보완 관계로 파악하고 있으

52) 박효중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교학사, p.54~55.

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오히려 퇴계의 이기론(理氣論)은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해석되는 데 반해, 율곡의 이기론(理氣論)은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상호 독립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 퇴계의 경우 이(理)와 기(氣)는 독립적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율곡은 다르다. 기(氣)의 독자적인 능력과 작용성을 인정한다. 또한 이(理)의 주체적인 주재를 부정한다. 다시 말해, 이(理)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기(氣)를 주재할 수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율곡이 말하는 이(理)의 주재는 기(氣)가 작용할 때, 그 방향이 이(理)를 표준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氣)가 이(理)의 준칙대로 하지 않았을 때 악(惡)으로 흐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理)와 기(氣)의 묘합의 원리를 이기지묘(理氣之妙)로 표현하였다고 하는데, 율곡의 이기론(理氣論)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의 처지에서 이 글을 읽으면 묘합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기지묘(理氣之妙)란 어떤 개념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理)와 기(氣)가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섞이지도 않는 관계이고, 이를 묘합의 원리라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며, 율곡은 이러한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는 용어로 칭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②또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는 것을 이통기국(理通氣局)이라고 하여 ‘이’와 ‘기’가 서로 보완하며 의존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제시된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 우선 이통기국(理通氣局)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하고 이(理)는 왜 통하고 기(氣)는 왜 국한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혼란스럽다. 이(理)는 통하고 기(氣)는 국한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理)는 형이상자로서 모습이 없다. 즉 무형 무상한 것이어서 언제 어디서든 매번 그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잃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기(氣)는 형이하자로서 형체도 있고

모습도 있으므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기(氣)가 국한된다는 것의 의미는 유행하며 본연의 모습을 잃어 다양한 차별 상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B사: “이이는 심성론에 적용되는 우주론적 존재 형식인 이와 기의 성격을 규정하였는데, “발동하는 것은 기요, 발동하게 하는 것이 이이다.”라고 하였다. 발동하는 작용을 하는 기와 그 원리로서의 이는 서로 개념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일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①또한 그는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理通氣局],”라고 주장하며 이와 기는 묘합(妙合)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형체가 없어 모든 것의 성(性)이 되는데, 이러한 측면을 가리켜 ‘이통(理通)’이라고 하였으며, 구체적 형체를 갖추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기는 형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측면을 가리켜 ‘기국(氣局)’이라고 하였다.

“53)

B사의 교과서에서는 이통기국(理通氣局)에 대한 설명이 다른 교과서보다는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있어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또한 이(理)를 발동하게 하는 요인으로 기(氣)를 발동하는 것으로 나누어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준칙과 동인(動因)의 관계로 알맞게 설명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율곡의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보는 태도를 서로 개념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일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면서 ① ‘또한’이라는 접속부사를 사용하며 이통기국(理通氣局)과 이기지묘(理氣之妙)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앞선 문장이 이기지묘(理氣之妙)의 의미풀이이므로 ‘또한’이라는 접속부사를 활용하여 두 용어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理)와 기(氣)를 서로 개념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53) 박병기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지학사, p.61~62.

분리될 수 없는 일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기지묘(理氣之妙)를 주장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율곡의 이기론(理氣論)만을 언급하기보다는 주자의 이기론(理氣論)이라든지 퇴계의 이기론(理氣論)과 비교하는 내용을 추가한다면 더욱 풍성하고 체계적인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주자는 이(理)가 기(氣)보다 먼저 존재하여 기(氣)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지 전체를 설정하여 주재한다. 그러나 율곡은 이(理)와 기(氣)는 그 어느 것도 먼저 존재하거나 선행하지 않고, 항상 함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모든 것은 기(氣) 내부에 동인을 갖고 있어 기(氣)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표준으로서의 이(理)가 있으므로 자의적으로 운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모습을 이(理)가 주재한다고 표현한다.

C사: “이이는 이귀기천의 입장을 지닌 이황과는 다르게, 이와 기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발(發)하는 것은 기요, 발하는 까닭은 이(理)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까닭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와 기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묘합의 논리를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이와 기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는 이기지묘(理氣之妙)의 관점이다. 이와 기가 서로 섞일 수 없음을 강조한 이황과 달리 이이는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질 수 없음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이이는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비판하며, ①‘기가 발하여 거기에 이가 타고 있다.’라는 명제는 맞지만 ‘이가 발하고 기가 이에 따른다.’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기발이 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이이의 주장은 이통기국론(理通氣局論)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통기국’이란 이는 본체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보편적인

것이고, 기는 특수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국한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모든 사물에는 보편적인 원리인 이가 들어있지만 모양이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불완전한 것은 바로 기의 국한성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⁴⁾

율곡의 이기론(理氣論)이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는 C사의 교과서에서 조금 더 내용을 보충하면 좋을 부분은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에 대한 부분이다. ①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에 대한 단순 뜻풀이에서 설명이 머무르고 있는데, 기(氣)가 발하여 기(氣)에 이(理)가 타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략한 설명만 추가하여도 학습자로서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기(氣)는 이(理)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기(氣) 자체가 촉발자가 되어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여기서 이(理)는 기(氣)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기(氣)의 상호작용 준칙 혹은 표준, 준거가 됨으로써 중심을 잡고 기(氣)가 나가는 방향을 정한다. 즉 기(氣)가 움직이는 방향의 방침,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이며, 율곡이 말하는 이(理)가 기(氣)를 주재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D사: “이이는 이와 기를 각각 ‘형이상(形而上)’과 ‘형이하(形而下)’로 구분한 다음 이는 어디에나 통하는 보편적 존재이며, 기는 제한적 존재라는 ‘이통기국론(理通氣局論)’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도 없고 서로 섞이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 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묘합(妙合)이라는 의미로 ‘이기지묘(理氣之妙)’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을 창안하여 설명하였다. 이로써 이이는 조선 성리학의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⁵⁵⁾

54) 정창우 외 11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미래엔, p.60~61.

55) 김선옥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p.59

이(理)를 형이상, 기(氣)를 형이하로 나누어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설명한 것이 좋았고, 형이상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고, 형이하이기 때문에 국한성을 갖는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또한, 분량이 매우 적어 다른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며, 다른 학자들과의 비교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율곡의 이기론(理氣論)은 주자, 퇴계와 마찬가지로 심성론(心性論), 수양론(修養論)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좀 더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율곡의 이기론(理氣論)에 대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기지묘(理氣之妙), 이통기국론(理通氣局論),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출판사마다 강조한 내용이 각기 다르며,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교과서만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러한 이론들이 마치 연결되지 않고 각각 다른 이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따라서 본문 외 여러 활동 및 자료들을 추가하여 율곡의 이기론(理氣論)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율곡 이기론(理氣論)의 요체인 세 가지 이론에 대한 유기적 설명이 절실하다.

율곡 이기론(理氣論)의 골자이자 요체는 이기지묘(理氣之妙)이다. 이기지묘(理氣之妙)는 율곡만이 쓰는 용어인데, 율곡의 이러한 생각은 기발이승(氣發理乘), 이통기국(理通氣局)이라는 율곡 이론의 시작점으로부터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발이승(氣發理乘), 이통기국(理通氣局)은 이기지묘(理氣之妙)와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키는 내용일 뿐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율곡은 주자의 이기론(理氣論)을 대부분 계승하여 이어나가면서도 스스로 만들어 낸 이론인 이기지묘(理氣之妙)라는 관점에서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바라보았다. 이기지묘(理氣之妙)의 관점에서는 이(理)의 ‘소이(所以)’가 있

는 그대로 강조되며, 이(理)와 기(氣)가 서로 떨어질 수 없으면서 또 서로 섞일 수 없다는 이기론(理氣論)의 기본적인 내용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내용을 다시 본인만의 이론으로 재구성하여 이기지묘(理氣之妙)라는 이론을 고안해냈다. 이러한 율곡의 이(理)와 기(氣)를 보는 관점은 심성론(心性論)에도 영향을 미친다. 율곡은 기(氣)의 독자적인 작용성을 강조하며 한번 움직이고 정하는 것은 기(氣)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움직임의 준칙 혹은 기준이 되는 것은 이(理)라고 한다. 즉, 그러함은 기(氣)이고 그러함의 까닭, 이유는 이(理)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理)와 기(氣)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불상리(不相離)’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理)가 기(氣)를 타고 기(氣)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기발이승일도(氣發理乘一途)를 주장한다.

또한 이통기국(理通氣局)의 근거를, 이(理)가 개체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보편성을 지니고 형체가 없는 무형인 것과 기(氣)의 유형(有形)에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발이승(氣發理乘)의 근거는 이(理)의 작용할 수 없음과 기(氣)의 작용할 수 있음에 두고 있다. 정리해보면 이통기국(理通氣局)은 이기(理氣)의 형체 유무에, 기발이승(氣發理乘)은 작용 여부에 근거하고 있다.⁵⁶⁾

이처럼 이(理)와 기(氣)의 관계는 떨어져 있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섞이지도 않는 불상리(不相離)와 불상잡(不相雜)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내용을 율곡은 이기지묘(理氣之妙)로 표현한 것이다. 이기지묘(理氣之妙)를 이해하는 것은 율곡의 이기론(理氣論)을 파악하는 핵심이기도 하며, 퇴계와 구별되는 율곡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퇴계의 이(理)는 절대적인 것으로 지극히 높아서 상대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만물에게 명령하는 역할만 할 뿐,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명령을 받지

56) 유성선, 「栗谷 李珣의 理氣論 研究 : 97 栗谷祭 學術論文 公募 入選作」, 『율곡학회』, 1997, p.437~438.

아니한다. 이처럼 퇴계는 이(理)가 기(氣)와는 무관하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理)인 것으로 본다. 하지만 율곡은 퇴계의 생각과는 다르다. 이(理)가 없는 기(氣)는 없고, 오로지 이(理)는 기(氣)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다. 이와 같은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보는 관점인 율곡의 이기지묘(理氣之妙)는 이(理)는 형체가 없고 기(氣)는 형체가 있는 까닭에 이(理)는 보편성을 갖고 두루 통하고 기(氣)는 국한하게 된다는 이론으로 발전한다.⁵⁷⁾

이통기국(理通氣局)은 ‘만물성동이(萬物性同理)’의 측면에서 성(性)을 예로 들며 설명하는 것이 이통(理通)과 기국(氣局)의 개념설명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이 부여한 성(性)은 만물이 본질적으로 같다. 물론 그 각자의 역할은 성(性)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역할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궁극적 목적은 같다. 즉 만물의 성(性)은 본질은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는 것이다. 개물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내용이 다른 까닭은 이(理)와 결합할 때 차별상을 가지게 하는 기(氣)가 이(理)를 국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통(理通)은 만물의 성(性)이 같은 것, 이(理)의 본질인 본연의 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국(氣局)은 기질에 따라 본연의 묘함을 잃은 자 혹은 잃지 않은 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각 사물의 이통기국(理通氣局)은 이일성수(理一性殊), 이일분수(理一分殊)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통기국(理通氣局)의 설명 후 덧붙여 율곡의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에 대한 생각도 밝혀주면 더욱 심도 있는 학습을 기대할 수 있다. 성(性)은 기질에 따라 천차만별 그 모습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그 본연지성(本然之性)은 기(氣)속에 내재해 있으면서도 기(氣)의 국한을 받지 않아 이(理)의 본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며, 기질지성(氣質之

57) 유성선, 위의 논문, p.440.

性)은 기(氣)의 국환을 받아 천차만별하고 선과 악이 있는 것이다.⁵⁸⁾ 이와 같은 율곡 이론의 유기적 설명은 교과 내용의 체계성을 높인다.

2)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게재된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과 관련된 내용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사: “이황이 사단과 칠정을 구분한 것은 혼란한 사회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리나 이상을 분리하여 순수한 도덕성을 지키려는 의도에서였다. 이에 비교해 이이는 현실과 분리된 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무리 훌륭한 이상이라도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다.”⁵⁹⁾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해서는 다루는 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사칠론(四七論)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교과 내용이 빈약하다고 느껴지므로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과 사칠론(四七論)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면, 퇴계와 내용의 균형을 맞춰 비교 가능할 것이다.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은 동기를 기준으로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으로 나눈다. 도리를 위해 생기는 마음은 도심(道心)이고 육체를 위해 생기는 마음은 인심(人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도리를 위해 생기는 마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마음, 애국하고자 하는 마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 등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性)대로 하려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이 도심(道心)인 것이

58) 윤용남, 「栗谷 四七論의 現代의 解釋」, 『동양철학연구』, 1998, p.133.

59) 박효중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교학사, p.54~55.

다. 한편 육체를 위해 생기는 마음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 날씨가 추워서 옷을 입고 싶은 마음, 피로가 누적되어 자고 싶은 마음 등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생기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을 인심(人心)이라 한다.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심(人心)은 악한 마음이고, 도심(道心)은 선한 마음이라는 공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인심(人心)의 예시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식욕, 수면욕 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므로 이러한 인심(人心)을 악한 마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인심(人心)을 어떤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가? 도심(道心)은 항상 도리를 실천하려는 것으로 항상 선(善)의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인심(人心)은 육체를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므로 악(惡)의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즉 인심(人心)은 위태로운 마음인 것이다. 하지만 인심(人心)이라고 하더라도 이(理)의 법칙대로 따른다면 도심(道心)으로 전환될 수 있다.

범인과 성인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성인은 기(氣)가 청수(淸粹)하여 기(氣)가 항상 이(理)의 표준대로 따라 도심(道心)으로 흘러 모든 행동이 선(善)하다. 하지만 범인은 기(氣)가 탁박하여 기(氣)가 이(理)의 준칙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행동이 악(惡)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율곡은 모든 사람이 본연의 모습인 기(氣)의 청수함을 회복하여 성인처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조금이라도 교과 내용으로 신는다면 학습자들은 뒤에 나올 내용인 수양론(修養論)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 율곡의 이기론(理氣論)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B사: “이이는 이황과는 달리 사단과 칠정은 두 방향으로 갈라져 나아간 대립적 감정이 아니며, ①칠정 가운데서 선한 감정만을 표출

시킨 것이 사단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이이의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지닌 감정들이 하나의 근원에서 발생되어 나온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단과 칠정의 감정을 이기론을 바탕으로 해명할 때도 (...)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의 발동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사람이 말을 타는데 비유하면 사람은 성(性)이고 말은 기질이니 말의 성질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또한 문을 나설 때 말이 사람의 의사를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 사람이 말의 발굽만을 맹목적으로 믿고 나오는 수가 있으니 말이 사람의 의사를 따르는 것은 사람이 주(主)가 되니 도심(道心)과 같고 사람이 말만 따라가는 것은 말이 주가 되니 인심(人心)과 같다.⁶⁰⁾

사람을 성(性)으로, 말을 기질(氣質)로 비유하여 설명한 것은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B사의 탐구해보기 활동에는 퇴계와 율곡의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비교가 있어 확실한 비교를 할 수 있다. B사의 교과서 내용에서 학습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①이다. 칠정(七情) 가운데서 선한 감정만을 표출시킨 것이 사단(四端)이라고 하였는데 칠정(七情) 중 어떤 것이 선한 감정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빠져있다. 따라서 칠정(七情)에 해당하는 감정들에 대한 설명 및 그 감정 중 어떤 것이 선한 감정인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면 내용의 짜임새가 더 촘촘해진다.

칠정(七情)은 희·노·애·구·애·오·욕을 의미한다. 이 감정 중 선한 것만을 말하면 사단(四端)이다. 사단(四端)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의미한다. 율곡은 측은지심은 애(愛)에 속하고 수오지심은 오(惡)에 속하며, 사양지심은 구(懼)에 속한다. 그리고 시비지심은 기뻐해야 할 상황인지, 슬퍼해야 할 상황인지, 노해야 할 상황인지를 아는 정(情)에 속한다고

60) 박병기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지학사, p.60~61.

말한다.

C사: “이이는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며, 기질지성 안에 본연지성이 있다고 하였다. (...) 인간의 성(性)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이는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포함하듯이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⁶¹⁾

매우 단편적인 설명만 나와 있어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과 사칠론(四七論)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인심(人心)과 도심(道心) 그리고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모두 정(情)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은 정(情)의 동기를 위주로 구분한 것이고,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정(情)의 결과 위주로 구분한 것이다. 이것을 더 풀어 설명하면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은 정(情)이 도리를 위해 발하였는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발하였는지를 보며 어떤 동기에 의해 정(情)이 발했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정(情)이 발한 후 결과를 두고 일곱 가지의 감정 중 선한 것만을 가리켜 사단(四端)이라고 구분한다. 즉 칠정(七情) 외에 사단(四端)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칠정(七情)은 사단(四端)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 요소를 추가한다면 단편적인 설명에서 입체적인 설명이 되므로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과 사칠론(四七論)을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D사: “①이이는 인심과 도심은 욕망과 도덕심을 구분하여 말한 것일 뿐 둘 다 기(氣)가 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발(理撥)과 기발(氣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현실에서는 이(理)없는 기(氣)없고 기 없는 이가 없기 때문에, 이발(理撥)을 주

61) 정창우 외 11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미래엔, p.61.

장하는 이황의 견해가 옳지 않다고 비판하였다.”⁶²⁾

①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을 욕망과 도덕심으로 연결해 마치 도심(道心)은 도덕심으로 연결되고 인심(人心)은 욕망으로 귀결된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도심(道心)은 도덕심으로 연결해도 무방하지만, 인심(人心)의 경우 기(氣)가 이(理)의 기준대로 따른다면 인심(人心)이더라도 도심(道心)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인심(人心)은 욕망으로 빠질 수 있는 위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알맞고, 인심(人心)을 곧 욕망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만약 인심(人心)을 욕망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율곡의 수양론(修養論)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 율곡 사상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자리 잡힐 수 있어 이 부분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과 사칠론(四七論)은 내용이 굉장히 소략하여 사단칠정(四端七情)이 인심도심(人心道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은 성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 율곡의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 마음이며, 이 마음이 어떻게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이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인심도심(人心道心)은 율곡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한 특징을 언급하면 다른 성리학자들과 비교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율곡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구분이 발출 동기에 의해 나뉜진다는 것과 동기가 다른 이유가 기질의 차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율곡이 생각한 인심(人心)은 육체를 유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즉, 육체를 위한 것이다. 반면 도심(道心)은 도의를 행하고자 하는 생각이고 도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은 상호

62) 김선욱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p.59.

대립적인 대등한 위치에 있으며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차이를 기(氣)의 질적인 차이에서 찾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생들은 처음 성리학을 접할 때 도심(道心)은 선한 마음, 인심(人心) 악한 마음이라 구분 지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심(人心)은 추울 때 옷을 입고 싶어 하고, 배고플 때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을 악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인심(人心)은 자칫하면 악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는 마음이지 인심(人心) 그 자체는 악(惡)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인심(人心)일지라도 이(理)의 준칙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런 마음은 선할 수 있다는 것도 덧붙여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 중 매우 배가 고프지만, 수업 시간에는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도덕 규범에 맞게 참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배를 채운다면 이것은 인심(人心)이 이(理)대로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인심(人心)이 이(理)대로 따르면 도심(道心)으로 흐른다.

율곡은 인심(人心)-칠정(七情), 도심(道心)-사단(四端)을 일치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인심도심(人心道心)은 다루고자 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다만 사단칠정(四端七情)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도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 근원이 하나이듯(心)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근원도 하나(心)라고 말한다.

정(情)은 기(氣)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에 뿌리를 두고 심(心)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발용(發用)한 것이다. 율곡은 이러한 정(情)을 기발이승일도(氣發理乘一途)라고 한다. 자극에 대해 발용(發用)할 때 이(理)가 기(氣)를 타고 일정한 기준을 갖고 기(氣)의 방향을 정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情)을 회·노·애·구·애·오·욕으로 구체화해 칠정(七情)이라 하고, 칠정(七情) 중 선한 것을 사단(四端)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칠정(七情) 외에 다시 사단(四端)은 없는 것이며,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 같

은 위치에 있는 대등한 관계인 반면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같은 위치에 있는 대등한 관계가 아닌 포함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정(情)과 악한 정(情)으로 나뉘는 이유를 순전한 성(性)에 뿌리를 두고 발(發)하였지만,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위와 같이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과 사칠론(四七論)을 더욱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비교해서 서술하면 단순 암기를 위한 학습이 아닌 진정한 배움이 가능하다.

3) 수양론(修養論)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제시된 율곡의 수양론(修養論)과 관련된 내용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사: “①그는 선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 속에서 기질(氣質)을 변화시키는 수양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바로 사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써 ‘경’의 실천을 제시한 것이며, 이를 통해 성(誠)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②‘성(誠)’은 성실, 정성 등을 의미한다. “중용(中庸)”에서 ‘성이란 하늘의 도리이고 성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 하였고, ‘만물의 시작과 끝이며 인격을 완성하는 요건’이라고 하였다. 주희는 이에 대하여 ‘참되어서 망령됨이 없다.’라고 해석하였다.”⁶³⁾

A사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율곡의 수양론(修養論) 내용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자세한 편이지만 읽어보면 문장들의 계열성이 느껴지기 보다는 중요한 말들만 이어놓은 느낌이 든다. 이러한 원인은 입체적이지 않은 설명 때문이다.

63) 박효종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교학사, p.54~55.

①퇴계와 주자의 수양론(修養論)에서 나왔던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에 대한 생각과 율곡의 생각은 일치한다. 그들과 율곡이 보이는 차이점은 율곡의 수양론은 궁리(窮理)·거경(居敬)·역행(力行) 이렇게 3가지를 요체로 한다는 것이다.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 살펴보았듯 율곡은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발출하는 동기를 다르게 보았는데, 사람마다 발출 동기가 다른 이유를 그들의 기질(氣質)이 달라서 그렇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율곡은 교기질(矯氣質)을 주장한다. 교기질(矯氣質)이란, 기(氣)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선한 마음인 본성(本性)처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질(氣質)을 바로 잡는 것을 교기질(矯氣質)이라 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교기질(矯氣質)에 대한 부연설명을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로부터 시작하면 학생들은 율곡 사상 내용의 통일성을 느낄 수 있다.

②성(誠)이란 율곡 수양론(修養論)의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핵심개념으로 ‘정성스럽다,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율곡이 말하는 성(誠)이란 다음과 같다.

“성의(誠意)는 수기치인의 근본이다. 지금 비록 별도로 입장을 만들어 그 대강을 진열하였지만, 성지의 의미는 사실 상·하 여러 장을 관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誠)이 아니면 뜻을 세울 수 없으며, 성(誠)이 아니면 이치를 깨달을 수 없으며, 성(誠)이 아니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나머지 것들도 모두 미루어 알 수 있다.”⁶⁴⁾

이처럼 율곡이 말하는 성(誠)에 대한 설명을 하는 원문을 넣어 학생들이 성(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

64) 『朱子語類』(上), 卷6, 性理三仁義禮智等名義, 201쪽: “誠, 實理也, 亦誠毅也, 由漢以來, 專以誠毅言誠 至程子乃以實理言, 後學皆棄誠慤之說不觀, 中庸亦有言實理爲誠處, 亦有言誠慤爲誠處”(유지웅, 「이황과 이이 성리학의 차이 극복을 위한 고찰」,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제57호, 2010, 304쪽에서 재인용)

서 율곡 수양론(修養論)의 또 하나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바로 입지(立志)이다. 입지(立志)는 본인 스스로가 성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으로 율곡은 이러한 입지(立志)를 수양의 첫 번째 단계로 꼽고 있다. 율곡이 입지(立志)를 수양의 첫 단계로 뽑은 이유는 율곡의 이기론(理氣論)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율곡은 이(理)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작용력이 없고, 기(氣)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기(氣)는 차별상을 갖고 있으므로 사람의 기질(氣質)에 따라 기(氣)가 이(理)의 잣대로 흐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氣)의 능동적인 작용을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거경(居敬)·궁리(窮理)에 앞서 해야 하는 것을 입지(立志)로 생각했다. 정리하면 나 스스로 뜻을 세워 기(氣)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한 후에 거경(居敬)·궁리(窮理)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율곡 수양론(修養論)의 특징과 이기론(理氣論), 수양론(修養論)을 연결하는 내용을 기재한다면 학생들은 율곡의 이기론(理氣論)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학습하고, 율곡 사상들의 연결고리들을 찾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B사: “경(敬)을 통해 성(誠)에 이를 것을 강조함”⁶⁵⁾

B사의 교과서는 본문 및 활동에 율곡의 수양론(修養論)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단원을 정리하는 페이지에서 퇴계와 율곡을 비교해놓은 표에 퇴계는 경(敬)의 실천을 강조하고, 율곡은 경(敬)을 통해 성(誠)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고 기재해 두었다. 이러한 결과는 율곡의 수양론(修養論)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생각하여 생략하였거나 혹은 율곡의 수양론(修養論)은 경(敬)을 통해 성(誠)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는 것만 암기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거나 앞서 주자와 퇴계의 수양론(修養論)에서 경(敬)에 대해 다뤘으므로 굳이 율곡의 수양론(修養論)에서까지 언급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으로

65) 박병기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지학사, p.68.

추정해볼 수 있다. 성리학에서 수양론(修養論)이 갖는 의미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퇴계나 율곡이 주장하는 바는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인간이 가진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 모두가 성인이 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목표는 같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도 이러한 내용을 시험을 보기 위한 학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현대사회에 맞춰 수양론(修養論)을 나름대로 각자 재해석해보고 계승할 방법은 없는지, 실천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성리학의 그 어느 이론보다도 가장 실용적일 수 있는 부분이 수양론(修養論)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선 율곡의 수양론(修養論)이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C사: “이이도 이황처럼 인격 수양에 있어서 경(敬)의 태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이는 경 못지않게 성(誠)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성이란 참된 것, 진실한 것이자 우주적인 질서를 의미한다. 이이는 경과 성의 관계에 대해 “성이란 하늘의 참된 이치이자 마음의 본체이다. 사람이 본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간사한 것이 가리기 때문이다. 경을 주로 삼아 개인적인 것과 간사한 것을 없애면 본체가 온전해진다. 경을 주로 삼아 개인적인 것과 간사한 것을 없애면 본체가 온전해진다. 경은 공부하는 요령이며 성은 공부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곳이니, 경으로 말미암아 성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여 경의 방법을 통해 성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⁶⁶⁾

C사는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보다 율곡의 성(誠)에 대한 설명을 가장 구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敬)과 성(誠)의 관계에 대한 율곡의 생각도 자세히 기재해 두었다. 다만 율곡의 수양론(修養論)에서 보이는 특징에 대해 조금

66) 정창우 외 11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미래엔, p.61.

더 설명해준다면 내용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율곡이 말하는 성(誠)이란 천도(天道)를 뜻하는 것으로 천도(天道)는 우주 내 만물이 존재하는 근거이다. 인간은 이러한 천도(天道)를 받들어 실천해야 하는데 이러한 실천을 인간의 도리, 즉 인도(人道)라고 한다. 덧붙여 율곡은 수기의 순서를 입지(立志)→수렴(收斂)→궁리(窮理)→성의(誠意)→교기질(矯氣質)→양기(養氣)→정심(正心)→검신(檢身)→회덕량(恢德量)→보덕(輔德)→돈독(敦篤)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입지(立志)를 수양의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율곡 수양론(修養論)만의 특징이며 기질을 바로잡는 교기질(矯氣質)을 율곡은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기질을 바로 잡음으로써 성인처럼 도심(道心)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도심(道心)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D사: “이이는 경(敬)을 통해 ‘성(誠)’에 이르는 수양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성을 참되고 거짓 없는 마음의 본체로 규정하는 한편 경으로 내면을 주재하여 사악함을 제거하면 성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⁶⁷⁾

대체로 모든 교과서가 율곡의 수양론(修養論)은 퇴계나 주자의 수양론(修養論)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가 단원 마무리 퇴계와 율곡을 비교하는 표에서 수양론(修養論)을 간략하게 제시한 교과서도 있다. 퇴계와 율곡이 수양 방법에서 강조하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주자의 수양론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앞의 내용에서 이미 서술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기 위해 율곡의 수양론(修養論)은 짧게 언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誠)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교과서가 많은 것으로 보아 율곡 수양론(修養論)의 내용 요소가 미약하게 다루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67) 김선욱 외 7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p.59.

다.

율곡은 「성학집요」에서 ‘사람의 선한 본성은 모두 같은데 다만 기질(氣質)의 맑고 흐림, 순수하고 잡박한 차이가 있어 본성을 잃은 자와 잃지 않은 자로 나뉜다고 하였다. 마음을 다해 실천하여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린다면 처음의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말이므로, 이 내용을 다시 이기(理氣)의 개념으로 바꿔 설명하면 성즉리(性卽理)에서의 성(性)은 순선무악(純善無惡)한 것이다. 그러므로 율곡은 본인의 갈고닦는 노력으로서 그 본래 모습의 성(性)을 회복할 수 있다는 복기성(復其性)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⁶⁸⁾

율곡의 수양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과서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성(誠)과 경(敬)의 개념, 그리고 성경론(誠敬論)으로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인간의 본성을 가린 기질(氣質)을 변화시켜 다시 본래 순선한 본성으로 되돌려 성인의 길을 가는 것이다. 따라서 성(誠)과 경(敬)에 대한 구체적 서술은 반드시 필요하고, 수양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추가되면 율곡의 수양론(修養論)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율곡은 「성학집요」에서 수기(修己)는 거경(居敬), 궁리(窮理), 역행(力行) 세 가지를 가장 핵심으로 보았다. 그리고 「격몽요결」에서는 거경(居敬)으로 그 근본을 세우고, 궁리(窮理)로써 사물의 이치, 선(善)을 밝히고 역행(力行)으로 그 요체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즉, 율곡 수양론(修養論)의 핵심은 거경(居敬), 궁리(窮理), 역행(力行) 세 가지인 것이다.

궁리(窮理)는 거경(居敬)에 의해 얻은 마음 자세로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율곡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수양 방법이다. 즉, 거경(居敬)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고, 지식을 얻으려면 거경(居敬)을 해야 한다. 성(誠)을 중심으로 하는 역행(力行)이란, 실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

68) 리홍균, 「율곡 수양론의 특징에 대한 고찰」, 『율곡사상연구』, 2007, pp.31-68.

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율곡이 말하는 경(敬)에서 성(誠)에 이르는 방법을 간략하게나마 제시한 후 경(敬)에서 성(誠)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한다면 학습자들은 율곡의 수양론(修養論)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율곡의 수양론(修養論)은 전반적인 율곡의 성리학 이론과 맞물려있는 요소이고, 율곡의 최종 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므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성리학 내용 중 주자, 퇴계, 율곡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들을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주자의 성리학은 이기론(理氣論)과 심성론(心性論), 수양론(修養論)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퇴계는 이기론(理氣論), 사칠론(四七論), 수양론(修養論)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율곡의 사상은 이기론(理氣論),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수양론(修養論)으로 구분 지어 살펴보았으며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는 사칠론(四七論)을 함께 다루었다. 이처럼 사상가마다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을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논의를 하였다.

주자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후에 퇴계와 율곡이 그의 사상을 대부분 계승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따라서 주자 성리학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기준으로 삼고 퇴계와 율곡 성리학을 살펴보면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 개념

이 명확해진다. 주자의 이기론(理氣論)부터 살펴보면, 이기론(理氣論)은 성리학의 모든 사상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이기론(理氣論)은 심성론(心性論), 수양론(修養論)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理)와 기(氣)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출판사 별로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주자의 이기론(理氣論)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 학습자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다. 그 후 주자의 심성론(心性論)과 수양론(修養論)을 잇달아 분석하였다. 심성론(心性論)에서는 심(心)·성(性)·정(情)에 대한 관계가 산만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기론(理氣論)과의 연계성도 서술되어있지 않아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서술보다는 각각의 내용을 암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에 대해서도 컴퓨터의 작동 예시를 들어 심(心)·성(性)·정(情)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컴퓨터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정(情), 이를 작동하게끔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성(性), 그러한 성(性)을 갖추고 실제로 작동하는 컴퓨터 하드웨어는 심(心)으로 생각하여 심통성정(心統性情)을 이해해보는 것이다. 수양론(修養論)도 단순히 나열하여 소개하는 데서 그치고 있어 이 두 영역의 관계성 및 구체적인 내용과 미비한 부분을 밝히고, 마찬가지로 내용의 체계를 갖추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퇴계의 이기설(理氣說)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존기비(理尊氣卑),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특히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의 경우 ‘이(理)가 동정한다’라는 의미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퇴계가 주장하는 이발(理發)은 기발(氣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능동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의미가 아닌 ‘이유로서의 동정’이다. 즉 이유에서의 동정을 말한 것이며, 다른 것의 명령을 받지 않고 혼자 동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칠론(四七論)에서는 퇴계의 사단칠정(四端七情)이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계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해 언급한 교과서는 없어 퇴계의 말을 인용하여 논의를 보충하였다. 마지막 수양론(修養論)에서는 퇴계가 수양론(修養論)에서 강조한 경(敬)의 의미, 공부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퇴계 사상에서의 경(敬)이 갖는 의미를 밝혔다. 대부분 교과서에서 경(敬)의 의미와 공부 방법, 거경(居敬) 시에 마음 상태를 혼동하여 서술하고 있었으며, 퇴계 사상에서의 경(敬)의 중요성과 비교해 내용이 소략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서 율곡의 이기설(理氣說)에서는 율곡의 사상에서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기지묘(理氣之妙), 이통기국(理通氣局),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와 더불어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는 율곡의 사칠론(四七論)을 함께 이야기하며 이러한 내용들이 수양론(修養論)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리를 정리하고, 수양론(修養論)에서 율곡이 강조했던 성(誠)의 의미와 율곡만이 보여주는 수양론(修養論)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금껏 논의해왔던 주자, 퇴·율의 성리학의 내용이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어떤 방향을 갖고 서술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찾으며 본 논문의 내용을 마무리하였다.

2. 결론 및 제언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주자, 퇴계, 율곡의 성리학 내용에는 사상을 단순 나열하여 내용의 긴밀성이 부족하고, 그 때문에 미흡하게 제시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윤리와 사상』 교과서는 수록할 내용의 체계성과 교과목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충족하고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위

해서 현 교과서의 부족한 점을 분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 주자 성리학에서 하늘이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역할을 부여하였고, 그것이 성(性)이다. 우주 내의 모든 만물에게 부여한 성(性)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이 갖는 목적은 같다. 하지만 기질이 다르기에 만물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 즉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이다. 사람은 사람의 성(性)대로 인간의 역할인 도덕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도(道)를 걷는 것이고, 불펜은 불펜의 성(性)대로 잘 써지는 것이 그 역할이고 불펜이 나아가야 할 도(道)이다. 이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성(性)을 하늘에서 부여받았으며 성(性)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성즉리(性卽理)이다. 모든 존재의 성(性)은 다 선하지만, 기질(氣質)에 따라 선한 본성이 다 드러날 수도, 혹은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부여된 선한 본성을 유지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하다. 경(敬)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안정시키며 사물의 궁리(窮理)를 통해 참지식을 깨닫고 누적하여 내 마음의 이(理)를 밝힌다. 다시 말해 경(敬)하면 궁리(窮理)를 정밀하게 잘 할 수 있고, 궁리(窮理)함으로써 경(敬)의 자세가 견고해질 수 있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공통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둘째, 퇴계 성리학에서 이기(理氣)의 관계를 서로 의지하는 상수관계라 하여 모든 우주 내 사물을 이기합(理氣合)으로 본다. 우리의 마음[心] 역시 이기합(理氣合)으로 마음[心]속에 있는 성(性)과 기질(氣質)이 각각 이(理)와 기(氣)이다. 이(理)와 기(氣)는 이(理)가 발하면 기(氣)가 그것을 따르고 기(氣)가 발하면 이(理)가 그것을 타며 성(性)의 변화를 기질(氣質)이 받아들이면 사단(四端)이 되고, 육체가 변화하는 것에 기질(氣質)이 응하고 성(性) 또한 이후 갈 방향을 제시하여 마음[心]이 움직이면 이것은 칠정(七情)이다.

이렇듯 이기론(理氣論)과 사칠론(四七論)은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경(敬)의 실천을 증시한 퇴계인 만큼 경(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경(敬)은 ‘정신 차려’의 의미로 깨닫고 느낀 바를 배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경(敬)의 상태가 되면 마음은 하나의 생각으로 집중하는 주일무적(主一無適)의 상태가 되고, 이것은 정신이 마음을 깨우는 것이다. 이를 상성성(常惺惺)이라 한다. 이와 더불어 외경(畏敬)인 정제엄숙(整齊嚴肅)의 방법으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바른 마음이 뒤따른다. 이처럼 퇴계의 경설(敬說)에 대해 경(敬) 의미, 거경(居敬) 시 마음 상태, 공부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

셋째, 율곡의 성리학에서 이기(理氣)의 관계를 말할 때 항상 함께 있으면서 이(理)가 기(氣)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준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를 인심(人心), 도심(道心)과도 연결해 육체를 위한 마음인 인심(人心)이 이(理)의 준칙대로 흐를 때 도심(道心)으로 전환되며, 이(理)의 준칙에 따르지 못하는 범인과 성인의 차이는 기질(氣質)의 차이이고, 이것은 수양을 통해 기질(氣質)을 바로 잡아야 한다. 수양 방법으로는 우선 본인이 스스로 성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세우는 입지(立志)를 시작으로 거경(居敬), 궁리(窮理)하여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이기론(理氣論)과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수양론(修養論)을 유기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성리학은 주자가 집대성하여 퇴·율곡이 적극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계승한 학문이므로 주자와 퇴계, 주자와 율곡, 주자와 퇴·율곡 또한 비교할 수 있고 이것은 성리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주자, 퇴계, 율곡의 이기론(理氣論), 심정설(心情說), 수양론(修養論)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성리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외에도 주자와 율곡의 인심(人心)과 도심(道

心)을 나누는 기준의 비교, 주자와 퇴계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의 비교, 주자와 퇴계의 이기론(理氣論)에 따른 성(性)을 보는 태도에 대한 비교 등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서술하면 각각의 학자들의 사상을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보다 구조화시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밝혔듯이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있는 성리학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향후 집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문 내용 외 교과서에 나온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며, 논박의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 성리학 내용이 교과서 만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서술되지 않아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과 성리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긍정할 수 있는 바일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추후 교수 학습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면 더욱 입체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을 기대할만하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계기가 되어 성리학의 근본적인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데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교과서

- 김선욱 외 7인, 교육부 검정 『윤리와 사상』 교과서, 서울 : 금성출판사
- 박병기 외 7인, 교육부 검정 『윤리와 사상』 교과서, 서울 : 지학사
- 박효중 외 7인, 교육부 검정 『윤리와 사상』 교과서, 서울 : 교학사
- 정창우 외 11인, 교육부 검정 『윤리와 사상』 교과서, 서울 : 미래엔

2. 원전자료

- ㉠퇴계집, 한국문집총간본, 29-31, 고전번역원.
- 『朱子大全』, 影印本, 1978.(辛卯(1771년 英祖47)入梓, 完營藏板, 1板20行22字)
- 『朱子語類』, 중문출판사, 1970.
- 『退溪全書』, 影印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8.

3. 단행본

-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도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9.
- 다카하시 도오루, ㉠『조선의 유학』, 조남호 편역, 소나무, 1999.
- 미우라 구니오 역, 『주자어류선집』, 서울 : 예문서원, 2012.
- 안유경,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 새문사, 2015.

4. 연구논문

- 뚜웨이밍, 「주희의 리철학에 대한 퇴계의 독창적 해석」, ㉠퇴계학보 ㉠35호, 1982.
- 류태건, 이황과 이이의 우주론과 인성론 비교 정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2집 제 1호, 2002.

- 리홍근, 「율곡 수양론의 특징에 대한 고찰」, 『율곡학연구』, 14권, 2007.
- 문석윤, 「퇴계에서 리발과 리동 리도의 의미에 대하여」, 『퇴계학보』10, 2001.
- 박지현, 「퇴계철학의 역동적 이해」, 동서철학□23, 2009.
- 박지현, 「퇴계 이황의 사단칠정론-리발설(호발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 퇴계학논집, 2011.
- 박학래,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한국의 윤리 사상’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83권, 2011.
- 유성신, 「栗谷 李珣의 理氣論 研究 : 97 栗谷祭 學術論文 公募 入選作」, 『율곡학보』, 제5권, 1997.
- 유지웅, 「이황과 이이 성리학의 차이 극복을 위한 고찰」, 『한국동서철학연구』, 57권, 2010.
- 윤용남, 「朱子 敬說의 體系的 理解」, 『윤리교육연구』, 제35집, 2014.
- 윤용남, 「朱子 心說의 體用理論的 分析」, 『동양철학』, 제7집, 2005.
- 윤용남, 「退溪 性理說의 體系的 理解」, 『동양철학』, 제41집, 2014.
- 윤용남, 「朱子 性說의 構造的 理解」, 『유교사상연구』, 제47집, 2012.
- 윤용남, 「栗谷 四七論의 現代的 解釋」, 『동양철학연구』, 19권, 1998.
- 이승환, 「퇴계리발설의 수반론적 해명」, 동양철학□34, 2010.
- 이영경, 「고등학교 윤리교육에서 퇴계 사상의 내용 구성 방향과 수업 방략 탐색」, 『윤리교육연구』, 22권, 2010.
- 이해영, 「이황의 수양론 - 성학십도와 경을 중심으로 -」, 『퇴계학』, 7권, 1995.
- 정연수, 「율곡의 사상과 인성교육에 관한 반성적 고찰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학계의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1권, 2017.
- 하지영, 「주자 철학에서 ‘주재’의 의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 홍원식, 「퇴계학의 독창성에 대한 외국학자들의 관점」, 『오늘의 동양사상』6, 2007.

ABSTRACT

“Content Analysi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Ethics and Thoughts Textbook according to the 2009
Revised Curriculum”

- Focusing on the Theory of
Juja(朱子)·Toeye(退溪)·Yulgok(栗谷) -

Soyeon Park
Department of Ethic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egye(退溪) and Yulgok(栗谷) are representative figures who led the heyday of Joseon's Neo-Confucian studies and completed the Neo-Confucian of Joseon Dynasty. While maintaining the great structure of Juja(朱子)'s theory, they differ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key concepts of Neo-confucian. These differences were linked to the way we view our lives, providing opportunities for future students to have a heated discussion. In addition, the Toegye(退溪) (Yeongnam) and Yulgok(栗谷) (Kiho) schools developed their respective academic systems. However, while the way in which the world was understood was different, the goals of the academic studies of Toegye(退溪) and Yulgok(栗谷) were the same. It is a life that restores good human nature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Of course, the process and

methods of living such a life were different, but it is significance that he devoted himself to his studies toward the same goal.

Among the various concepts of Neo-confucian, the essalist focuses on the content of Neo-confucian, which is discussed in high school *Ethics and Thoughts* Textbook. Every year, questions about Neo-confucian in the Ethics and Thoughts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re usually addressed as issues with high discrimination. The Neo-confucian, in which students find it particularly difficult, should be described in a way that makes it easier and more accurate to be an intellectual curiosity and an asset to humanities. Otherwise, students will be memorizing for the test without fully understanding the Neo-confucian and lose the opportunity to realize the true realization of the philosophy of the Orient. In other words, they face the limitations of studying for an exam, not the learning for oneself.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and analyze parts of the Neo-confucian in high school ethics and thought textbooks to see if the descriptions were written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cholar in the Neo-confucian.

I divided the textbook into Li-Gi Theory (理氣論), Human Nature theory (心性論), and self-cultivation Theory (修養論). In Toegye's ideology, the chief focus was on the theory of Gyoung (敬) and Four budding - seven emotions (四七論), and in Yulgok's ideology, the theory of "the Human Mind" (人心) and "the Moral Mind" (道心) was discussed.

The Juja(朱子), Toegye(退溪) and Yulgok(栗谷) understand the elements that make up everything in the universe as a relationship between Li(理) and Ki(氣). This way of understanding the world affects all of their theoretical domains. In other words, Li-Gi Theory (理氣論)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understanding Human Nature theory (心性論), and self-cultivation Theory (修養論). also th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ideas of the Neo-confucian.

However, whil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students, Toegye(退溪) and Yulgok(栗谷) in high school textbooks, it is not considered very important. Considering the fact that Li-Gi Theory (理氣論) is the basis of all theories, it is helpful to understand how close it is to Human Nature theory (心性論), and self-cultivation Theory (修養論), but it is difficult to find textbooks that implement it. In addition, there were some parts that were difficult to understand by reading textbooks because the conceptual theorem was too distracting or the contents were too small.

As the text also suggests, the structure, linkages and specific meanings of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should be the direction that aims to go the distance when writing high school textbooks. In addition, when textbook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bstract explanations and fragmentation and follow the key elements I have presented, students will be able to make meaningful learning.